metro®
메트로 2015년 1월 8일 목요일 제3131호 www.metroseoul.co.kr

손잡고 인사하는 박지원·문재인·이인영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2·8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당 대표 후보들이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새정치연합의 차기 당대표 선거는 박지원·이인영·문재인 후보(기호순)의 3자 대결로 압축됐다. 왼쪽부터 박지원, 문재인, 이인영 의원. <관련 기사 2면> /뉴시스

갤노트 3가 공짜폰?… '요금제 호갱'

출고가 인하·지원금 올려도 고객들 반응 '미지근'
구형 공짜폰도 고가요금제 의무가입해야 가능

단통법 100일… 개정 목소리 여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8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통신시장은 살아나고 있지만 여전히 법 개정 목소리가 높다.

단통법 시행 초기에 비해 출고가 인하, 지원금 상향 움직임은 보다 적극적이지만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를 체감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형폰뿐 아니라 최신폰에 대한 지원금 상향, 출고가 인하 움직임이 활발하다.

실제 지난해 7월 출시된 LG전자 G3 Cat.6 단말기 출고가는 지난 1일부터 92만4000원에서 79만9700원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알파 출고가 역시 74만8000원에서 49만5000원으로 인하됐다. 이 밖에 지난해 11월 출시된 LG전자 아카, G3 비트 등 최신폰의 출고가도 10만원 이상 인하되면서 소비자 부담을 낮췄다.

15개월이 지난 구형폰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공짜폰이 등장하는 모습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출시된 지 15개월 이상 단말기는 지원금 상한 범위 예외로 적용된다. 이에 지난 2013년 9월 국내 출시된 갤럭시 노트3도 지원금이 크게 상향됐다. 현재 갤럭시 노트3의 출고가는 88만원이다. KT는 완전무한129 요금제 이용 시 지원금 88만원을 줘 사실상 공짜폰으로 만들었다. 갤럭시 노트3에 SK텔레콤도 72만5000원, LG유플러스는 65만원의 최대지원금을 준다.

하지만 최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 이처럼 단통법 이후 합법적인 공짜폰의 통로가 생겼다고 하지만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적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전엔 불법이더라도 고가 요금제를 3개월 한정적으로 이용하면 공짜폰을 지급하곤 했다. 반면 단통법 시행 이후 갤럭시 노트3처럼 공짜폰을 합법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고가 요금제를 2년간 이용해야 한다. 그야말로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인상을 유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통법이 이용자 차별,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용자 차별 요인의 유통구조만 철저히 통제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을, 단통법으로 인해 군이 소비자에게 많이 주겠다는 보조금도 줄 수 없는 현실은 잘못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이동통신사별 공시지원금 지급 현황

	단말기명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최신폰	갤럭시노트4	22만원	25만1000원	23만원
	갤럭시S5 광대역	30만원	27만원	23만원
	아이폰6 16GB	22만원	30만원	29만7000원
	G3 CAT.6	25만원	27만원	29만원
구형폰	갤럭시노트3	72만5000원	88만원	65만원
	갤럭시S4	50만원	42만1000원	47만원
	G2	61만6000원	61만6000원	50만원

이통사별 최대 지원금 기준(SK텔레콤 전국민무한100, KT 완전무한129, LG유플러스 무한자유124 요금제). 최신폰과 구형폰은 출시 15개월 기준으로 분류.

"회장님!" 부르면 시각 반응

이건희 삼성 회장 내일 생일

장기 입원 중인 이건희(73·사진) 삼성그룹 회장이 시각 반응을 보이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삼성 측에 따르면 "회장님"이라고 부르면 이 회장의 눈이 반응을 해 인지기능 회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회장은 자가호흡을 비롯해 신체적으로 큰 이상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7개월째 재활치료 중이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아침과 저녁에 방문해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가운데 의료진이 매일 휠체어 산책과 규칙적인 재활 치료를 하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9일 병상에서 74번째 생일을 맞는다. 이에 따라 삼성은 매년 이 회장의 생일 축하를 겸해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했던 사장단 부부 동반 만찬행사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삼성 미래전략실 이준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은 이날 수요 사장단회의 브리핑에서 "올해는 특별한 일정이 없는 걸로 안다. 예년에 하던 행사들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장님이 편찮으시니까 조용히, 특별히 계획 없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임원 만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훈기자 zen@

불황과 고용은 별개?

기자 수첩

박 성 훈
<경제산업부 기자>

올해 대다수 대기업은 '긴축경영'에 돌입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장기형 불황으로 판단하고 원가절감과 함께 조직개편, 명예퇴직 등의방식으로 인력을 조정할 예정이다.

그러다 보니 투자·고용 계획 역시 제자리걸음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28개 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절반이 넘는 CEO가 "올해와 유사한 수준"(50.9%)이라고 답했다.

"축소하겠다"(25.5%)는 응답이"확대하겠다"(23.7%)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마디로 투자든 고용이든 예년 수준 또는 그 이하일 뿐 늘리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일단 엎드리고 보자는 의도인 셈이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제일 첫 의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인 이유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한다. 중요한 포인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이행하는 주체는 사람, 즉 근로자라는 사실이다.

근로자가 만든 물건이 시장에 나가면 기업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근로자들이 구매를 한다. 즉 기업과 근로자는 상생관계다.

지금의 불황이 기업이 일정 수준을 밑도는 고용을 유지하는 까닭에 생겼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재의 경기를 장기불황으로 보고 있는 대다수 기업이 고용 확대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더 많은 근로자가 생기면 만들어지는 물건 역시 늘어나고 더 늘어난 근로자들이 물건을 더 많이 사면 기업의 이익 역시 증가한다.

불황에도 인력감축을 하지 않아 오히려 성장세를 누리고 있는 의외의 기업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이유다.

"조현아 국토부 조사 개입"

검찰 '땅콩 회항' 중간수사

5개 혐의 적용 기소… 일등석 무료 탑승 등 추가 조사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서 김창희 차장검사가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 회항'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한 김창희 차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총 다섯 가지의 범죄 행위가 적용됐다. 구체적으로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항공기 안전운항저해폭행죄(5년 이하 징역), 강요죄(5년 이하 징역),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검찰은 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도 구속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여성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 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하게 해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무료 탑승 의혹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새누리 비주류 청와대 쇄신론 공론화

청와대가 검찰의 '정윤회 문건' 중간수사 발표 후 이번 사건을 "몇 사람의 개인적 사심"에 따른 일탈로 선을 그었지만, 새누리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청와대 책임론·인적쇄신론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7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검찰 중간수사 결과를 거론, "찌라시 수준의 문건이 청와대에서 유출됐고 연말에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옛 친이계의 정병국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사건은 청와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청와대가 만든 문건이고 이런 문건이 밖으로 유출됐다는 팩트가 있는 게 아니겠나"라며 "누군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에서 책임을 지고 인적쇄신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조현정기자

법사위원장 찾은 정홍원 총리 정홍원 국무총리(왼쪽)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을 방문해 법안처리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뉴스

朴 대통령, 오는 12일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돼 집행되는 첫 해로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도약시킬지에 대한 대책과 국정 운영 방안, 남북 관계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힌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일의원연맹 의원들, 아베 면담 추진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음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면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7일 전해졌다.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회장인 서 최고위원은 오는 14~16일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며 이 기간 아베 총리와의 면담을 추진 중이라고 서 최고위원 측이 밝혔다.

재야세력 국민모임, '진보적 신당' 준비

●시민사회와 학계 등 재야 진보인사로 구성된 '국민모임'이 7일 신년회를 하고 신당 창당 준비에 본격 나선다.

이날 서울 명동 YWCA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김상근 목사, 명진스님,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공동대표를 포함한 50여 명이 참석, '대중적 진보정치' 실현을 위한 신당 주비위원회 발족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대표, 박지원·이인영·문재인 압축

박주선·조경태 탈락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당대표 선거가 박지원·이인영·문재인 후보(기호순)의 3자 대결로 압축됐다.

새정치연합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8 전국대의원대회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해 본선에 나설 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확정했다.

모두 5명이 출마한 대표 예선에서는 박주선·조경태 후보가 고배를 마셨고, 최고위원 예선에선 전병헌·이목희·주승용·유승희·정청래·박우섭·노영관·문병호·오영식(이상 기호순) 후보 등 9명 가운데 노영관 후보 1명이 탈락했다.

이날 예선은 비상대책위원회인 임시 지도부와 고문단,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시도의회 의장 등 378명의 중앙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대표 선거에 1인 1표, 최고위원 선거에 1인 3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선 투표에는 326명의 중앙위원이 참석했으며 각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수는 전대 경선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본선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차기 지도부의 이념 좌표와 대여 노선, 공천 개혁 등 혁신안, 계파주의 청산, 대권·당권 분리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양강으로 여겨지는 문재인, 박지원 후보 간의 세대결이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예선을 통과한 후보자들은 10일부터 내달 1일까지 17개 도시에서 열리는 시도당 대의원대회에 참석, 합동 연설회를 갖는다.

새정치연합은 내달 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전대를 열고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조현정기자 jhj@

"대북전단 필요시 안전조치"

정부 "기본입장 변함 없어… 북 조건없이 대화 응해야"

정부는 7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전단살포 행위를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6일 의정부지법원의 판결과 관련 "정부는 이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한을 겨냥, "북한은 대화가 열리기 전에 우리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제조건으로 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북한은 전제조건 없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는 실천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우리 지역에 총탄을 발사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이다. 그것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만약에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이 어떤 신체에 손상이 간다거나 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우기자 cyclone@metroseoul.co.kr

청계천에 고드름이! 한파가 몰아닥친 7일 고드름이 달린 서울 청계천변을 시민들이 걷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조작 무마' 돈 받은 금감원 팀장 기소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투자회사로부터 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신 투자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금융감독원 팀장 이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공여 및 취득)로 A 투자회사 실사주 조모(34)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방모(37)씨·이모(44)씨도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투자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조씨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회계사 김모(55)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6월 23일 조씨로부터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금감원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투자회사는 투자 유치 실적을 부풀려 주가를 높였다는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현금 5000만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중개업자 방씨에게 전했고, 방씨는 이 돈을 이씨와 친분관계가 두터운 금감원 전 직원인 이씨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현금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금감원 팀장 이씨에게 전달하고 술값·상품권·유흥비 등 총 2600만원 상당의 향응도 이씨에게 제공했다.

현재 3급 팀장직 이씨는 금감원 전 직원인 이씨와는 입사 동기로 두터운 친분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우기자

"총기난사 임 병장 정신질환자 아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강원 고성 22사단 GOP(일반 전초) 총기난사 사건 피의자 임모(23)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가 '대체로 정상 소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임 병장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같은 해 12월 19일까지 한 달여간 실시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 '대체로 정상'이라는 소견을 보였다.

변호인 측은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오랜 기간 따돌림당한 경험으로 인격이 다소간 왜곡되는 등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있으나, 이는 일반인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라며 "대체로 정상인 범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이 같은 소견은 임 병장의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라며 "그럼에도 임 병장의 항변은 '참다 참다 오죽했으면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겠느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옴에 따라 한동안 연기됐던 제5차 공판도 속행된다.

육군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임 병장에 대한 제5차 공판을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유주영기자 boa@

'이완구 총리설'의 부수적 문제

여의도 패트롤

새해 개각설 중 핵심은 이완구 총리설이다. 이 원내대표 본인은 청와대에서 아무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밝혔지만 유력하다는 설이 파다하다. 총리 내정설이 그럴 듯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간 원내대표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는 '세월호 정국'이 4월부터 연말까지 이어지고 정부 여당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여야 타결을 이뤄냈고 세월호 정국을 끝냈다는 점을 높게 사는 이들이 많다.

이완구 총리설이 실현되면 호사가들이 좋아할 풍경이 연출될 수 있다. 바로 황우여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와의 관계에서다. 사회 생활에선 선후배 관계, 상사·부하 관계가 언제든 역전되기도 하는데 이 원내대표와 황 부총리 관계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둘은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황우여 대표체제에서 잠시나마 대표와 신임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나이는 황 부총리가 세 살 많고 둘 다 15대에 국회에 들어왔지만 황 부총리는 5선이고, 이 원내대표는 충남도지사로 외도를 한 3선이다. 이 원내대표는 황 부총리를 '정치 선배'가 아니라 '동기'라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세간의 시선은 보통 '선배'로 본다.

게다가 황 부총리는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명됐었고 국회의장에 출마했다가 떨어지기도 했다. 경력상으론 '선배'격이다. 교육부 장관으로 갈 때에도 '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대표가 총리도 아니고 부총리 장관급으로 가는 것을 두고 '굴욕'이라고 평한 이들도 있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왼쪽)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완구 총리'가 실현된다면 속세 기준으론 가장 속이 아플 이가 바로 황 부총리가 된다. 언론과 호사가들은 이 점을 눈여겨 볼 것이다. 총리 주재 국무회의 풍경을 두고 둘을 한 프레임에 몰아 넣고 비교할 게 틀림없다. 황 부총리로선 껄끄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부수적 문제가 과연 이 부총리 내정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2013년 4·24재보선으로 함께 국회에 들어온 김무성,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도 주목할 만하다. 셋은 국회 입성 직후인 재작년 6월 '동기 오찬'을 갖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안 의원이 다음 모임 밥값을 내기로 했었는데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 안 의원의 상황이 '동기 모임'을 주최할 만큼 여유롭지는 않다. 셋 다 차기 대선 후보군에 속했기 때문에 동기간의 경쟁은 재미있는 차기 대선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유보좌

전두환 차남 재용씨 위증교사 혐의 포착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51)씨가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재용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밤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용씨는 오산 양산동 땅 매매과정에 개입했다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 박모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용씨로부터 땅을 매입한 박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공판에서 재용씨의 임목비 허위계상 혐의와 관련 1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었다.

검찰은 법정진술을 놓고 뒷거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정우기자

"잠자는 휴대폰, 우체국에 파세요"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은 7일부터 전국 221개 주요 우체국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 중고 휴대폰은 스마트폰의 경우 ▲전원고장 ▲통화 불가능 ▲액정 파손 ▲분실·도난 기기 등 4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종이며 폴더폰은 성능·기종과 상관없이 모두 매입한다.

매입 가격은 스마트폰의 경우 ▲강화유리 파손 ▲Wi-Fi ▲카메라 ▲화면잔상 등 4가지 요건과 기종을 고려해 결정된다. 폴더폰은 1대당 1500원을 판매자에게 보상한다. 매입금액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즉시 판매자의 입금 계좌로 송금된다. 중고 휴대폰을 팔기 위해서는 우체국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조현정기자 jhj@

수염 난 내 모습 한 여성이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중 파나소닉 부스에서 증강현실 거울 '퓨처 미러'에 자신의 얼굴에 수염이 난 모습을 지켜보며 신기해 하고 있다. 거울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 퓨처 미러가 실시간으로 사람이 얼굴에 머리를 꾸며주거나 화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AP뉴시스

세계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는?

호주 콴타스 1위… 제트기 시대 개막 이후 사망 사고 없어

지난해 대형 여객기 참사가 잇따르면서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는 어디일까.

항공사 안전을 평가하는 사이트 에어라인레이팅스닷컴(airlinerations.com)이 호주 콴타스 항공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꼽았다고 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전했다.

콴타스항공은 지난해에도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뽑혔다. 미 NBC 방송에 따르면 콴타스항공은 제트기 시대 개막 이후 사망 사고를 낸 적이 없다.

이 밖에 에어뉴질랜드와 케세이퍼시픽, 영국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에티하드항공, 에바항공, 핀에어,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등이 '안전한 항공사'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저가 항공사 중에서는 에어링구스와 알래스카항공, 아이슬란드에어, 제트블루항공 등이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실종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간 항공기에 15분마다 위치를 보고하도록 하는 국제 기준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앤서니 필빈 대변인은 "다음달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항공 안전을 주제로 회의를 열어 국제 기준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5분 위치 보고'는 별도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기준 채택 시 단기간에 적용 가능하다. ICAO가 마련하는 기준은 통상적으로 회원국 191개국이 규제 조항으로 도입한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노출신 뺀 '대두 드라마'

metro HongKong

판빙빙 주연 사극 논란

중국 톱스타 판빙빙 주연의 대하 사극 '무미낭전기'가 최근 방송을 재개하면서 '대두(大頭) 드라마'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후난위성TV를 통해 성황리에 방영 중이던 무미낭전기는 지난달 28일 방송이 중단됐다. 방송사당 연중 사극 방송 제한 횟수를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국 측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극중 여배우의 지나친 노출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방송을 재개한 무미낭전기에서 여배우들이 등장하는 장면은 모두 얼굴을 화면 가득 잡는 클로즈업신이었다. 후궁과 궁녀들은 어깨위로만 화면에 잡혔고, 관능적이고 화려하던 복장은 잘려나갔다.

네티즌들은 "판빙빙이 하루 사이에 대두 공주로 변했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판빙빙도 이 상황에 대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 간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드라마와 관련해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무미낭전기는 여전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 중이다. /정리=조선미기자

220년 전 타임캡슐의 개봉 순간 미국 보스턴미술관 보존처리전문가 파멜라 해치필드가 6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의사당 주춧돌 밑에서 발굴한 타임캡슐의 뚜껑을 개봉하고 있다. 이 타임캡슐은 소가죽으로 만들어져 매사추세츠주 의사당 건축이 시작된 1795년 주춧돌 아래 묻혔으며 1855년 내용물들이 이 금속통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보스턴미술관은 이 타임캡슐을 지난달 11일 발굴했었다. /AP연합뉴스

김정은 암살영화 '인터뷰' 대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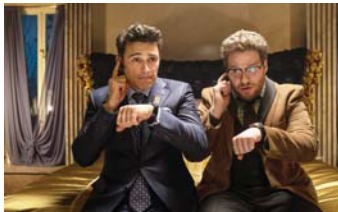
개봉 2주만에 400억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사진)가 흥행대박을 터뜨렸다.

소니픽처스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11일 동안 온라인이나 케이블, 위성방송 등을 통해 '인터뷰'가 모두 430만건 이상 상영됐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온라인 판매 수익은 3100만 달러(약 340억원)를 넘었다. 이는 온라인으로 상영된 소니픽처스 영화 중 최고 수익이다.

이와 별도로 '인터뷰'를 상영중인 미국 전역의 독립영화관 580곳을 통해서도 소니픽처스는 500만 달러(약 55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김 위원장을 풍자적으로 다룬 영화 인터뷰는 북한의 반발과 해커 집단의 사이버 공격, 영화관을 상대로 한 테러 위협 등으로 개봉이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북한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소니는 지난달 24일부터 유튜브, 구글플레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비디오, 소니 자체 웹사이트 등을 통해 주문형 비디오(VOD) 형식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논란이 오히려 노이즈마케팅으로 작용해 인터뷰 흥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국명기자

사과하라는 미국 vs 버티는 일본

아베 총리 방미·담화 놓고 신경전 팽팽

과거사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일본의 외교 신경전이 가열될 조짐이다.

AP·AFP 등 주요외신은 미국이 오는 4~5월로 예정된 아베 신조(사진) 총리의 방미에 앞서 입장 변화를 끌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계속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고 수정주의적 태도로 일관할 경우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물 건너가고, 이는 중국을 견제하고 역내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수단인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틀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종전 70주년 기념담화에서 아베 총리가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내용을 담도록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종전 70주년 기념 담화에서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지난달 총선 압승으로 국내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진 아베 총리가 진정한 사과를 외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수 세력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닛케이는 이날 아베 총리와 가까운 의원들 사이에서 "담화는 한국·중국에 대한 사과를 목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국명기자 kmlee@

"'핀테크' 경쟁력, 미국 보고 배워야"

해외 기업, 예금·자산관리 등 영역 확장… 국내 제도 개선 시급

금융가 사람들

■문병순 LG경제연구원 연구원

금융당국이 핀테크(Fintech·정보기술을 활용한 금융) 산업 육성을 올해 최우선 금융정책 과제로 결정하면서 금융권에도 핀테크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지난 1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의 역점 과제는 바로 핀테크 혁명"이라며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소비자 보호와 보안 강화 등의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만으로 국내 핀테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메트로신문과 만난 문병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수준에서는 이미 수 년에 걸쳐 핀테크 기업들이 활발하게 창업을 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와 제조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전세계 핀테크 100대 기업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문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출시된 애플페이는 간편성과 보안성을 발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알리페이와 페이팔, 민트닷컴 등 IT업체들 역시 예금과 송금, 대출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자산관리와 투자자문 영역에도 발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병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핀테크 산업 성장 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손진영기자 son@

실제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액 또한 미국과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2008년의 9억3000 만달러에서 2013년 29억7000만 달러로 세배 이상 증가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해외 소비자들이 '천송이 코트' 등의 제품을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된 후에야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했다"며 "다음카카오가 국내 14개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뱅크월렛 카카오' 서비스를 내놨지만, 핀테크에 기반한 글로벌 차원의 금융업 혁신 추세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금융 주권까지도 해외 업체들에게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

문 연구원은 핀테크 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으로 ▲금융실명제법상 비대면 본인인증 금지 ▲금융기관들의 공인증서 사용 강제 ▲비합리적인 규제 등 각종 '규제'를 꼽았다.

그는 "핀테크 서비스는 금융정보를 공유해야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규제의 양도 문제이지만, 더 큰 장애물은 규제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규제가 선진국에서 자유롭게 출현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성장한 다음에 우리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후발주자의 어려운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결책은 없을까. 문 연구원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많고 복잡한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미국이 혁신적인 핀테크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해 비합리적인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고, 비조치 의견서라는 면책 제도 등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들이 활성화돼 있다"며 "혁신적인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또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 연구원은 특히 "선진국들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비합리적인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며 "이는 핀테크와 같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출현에 도움을 주면서도 투자자보호와 금융질서 유지와 같은 다른 목적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 개혁 지원 노력은 고무적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과거의 비합리적인 규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성장한 뒤에 규제를 완화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비용과 소비자 효용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한 우선 영역을 선정하고, 이를 통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국민·신한銀 임단협 타결… 임금인상 2%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임금 단체협상(임단협)이 타결됐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7일 사측이 제시한 올해 임금 인상률 2.0%에 합의하면서 임단협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4200여명의 경력 인정은 기존 최대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영업직 직원에게는 태블릿PC도 지급한다. 다만 정년연장에 의한 임금피크 제도 개편과 이익배분제도(P/S) 보완 등 사항은 앞으로 노사가 관련 전담팀(TFT)을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희망퇴직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은행들의 임단협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통합을 앞둔 하나·외환은행의 임단협은 외환은행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시기·급여수준·자동승진 여부 등 조건에 대한 노사간 의견차가 커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무기계약직 2200여명 전원의 6급 정규직 즉시 전환 ▲기존 6급 정규직의 급여기준 적용 ▲일정기간 경과 후 전원 5급으로 자동승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진은 ▲무기계약직의 통합 후 1개월 이내에 선별적 6급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후 현 급여수준 유지 ▲일정기간 경과 후 별도의 승진심사를 통한 승진기회 부여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 노조는 5.5%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외환은행과의 통합 등 환경 변화에 상응한 직급과 급여체계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외환은행과의 통합을 마무리한 뒤 하나·외환은행의 노조 안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지기자 minji@

K-OTC, 거래대금 27배 성장

작년 시총 25배 넘어

장외 주식시장인 K-OTC시장이 지난해 8월 개설 이후 거래대금은 약 27배, 시가총액은 약 25배 넘게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K-OTC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약 2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K-OTC시장의 전신인 프리보드 당시의 약 27배에 달하는 규모다.

K-OTC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은 '대어급' 삼성SDS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둔 지난해 10월 29일 78억2000만원으로 최정점을 찍기도 했다.

평균 시가총액도 삼성SDS 상장일인 11월 14일 이전에는 평균 42조811억원, 이후에는 평균 12조7120억원으로 프리보드 당시보다 최소 25배 이상 급증했다.

거래 기업 수는 프리보드 당시 48개에서 지난해 말 117개로 늘었다.

시총 상위기업은 포스코건설(2조3000억원), 삼성메디슨(1조4000억원), 미래에셋생명(9024억원) 순이었다.

누적 거래대금 상위기업은 삼성SDS(총 889억8000만원), 삼성메디슨(711억5000만원), 퀀텀에너지(112억70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K-OTC시장은 기존 장외 주식시장의 한계로 지적되던 결제 불안정성과 가격 불확실성 등 비상장 주식거래의 폐단을 상당히 해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금투협은 올해 지정기업을 대폭 늘리고 2부 호가 게시판을 개설하는 등 신규 투자 대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현정기자 hjkim1@

market index <7일>

코스피
1883.83
(+1.38)

코스닥
561.32
(+2.42)

금리(국고채 3년)
2.08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102.20
(+3.20)

을미년 양 목걸이 어때요 청양의 해를 맞아 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꼼에스타에서 모델들이 양 모양의 목걸이와 팔찌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90% "갑질 공포"

직장인 10명 중 9명은 '백화점 모녀 사건'처럼 갑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796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중 을의 위치일 때 갑에게 부당한 대우 당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89.9%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당한 부당한 대우로는 '갑이 일방적으로 업무 등 스케쥴 정함'(55.3%,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시도 때도 없이 업무 요청'(48.7%), '반말 등 거만한 태도'(38.1%), '의견 등 묵살당함'(37%), '업무를 벗어난 무리한 일 요구'(35.9%), '욕설 등 인격모독'(19.6%), '비용을 제때 결제해주지 않음'(14.5%), '업무 실적을 빼앗김'(12.7%)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당한 대우로 받은 스트레스도 심각했다. 응답자의 52.2%(복수응답)가 만성 피로감을 호소했고 '두통'(43.2%), '소화불량'(42.2%), '수면장애'(26.7%), '우울증'(22.1%) 등에 시달린다는 대답도 많았다. /이국명기자

연금복권520 제184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4조	840109
		1조	135158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979539
4등	100만원	각조	96054
5등	2만원	각조	767
6등	2000원	각조	44, 61
7등	1000원	각조	1, 5

출처 : 나눔로또 공식홈페이지(www.nlotto.co.kr)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완성차 판매조건…"우리가 최고"

K5 500h 200만원↓…현대차보다 할인률 높아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1월 판매조건을 내걸면서 새해 신차 판매전에 나섰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달보다 전체적인 조건이 약간 나빠졌다. 엑센트와 LF 쏘나타, 그랜저, 제네시스는 지난달에 기본 할인 또는 저금리가 제공되었으나 이달에는 그런 조건이 없어졌다. 대신 지난달에 할인되지 않던 투싼ix가 이달에는 20만원 기본 할인된다. 최고 인기 모델인 아반떼는 지난달에 '50만원 할인' 또는 '20만원 할인+3.9% 저금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던 조건에서 '20만원 할인+3.9% 저금리'로 단일화 됐다. 벨로스터(20만원 할인+3.9% 저금리)와 i30·i40(50만원 할인+3.9% 저금리)의 판매조건은 지난달과 같다. 조건이 가장 후한 모델은 그랜저 하이브리드(구형)로, 100만원 할인 또는 50만원 할인+3.9% 저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달에 새롭게 추가된 조건도 있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보유한 고객에게는 엑센트 구입 때 30만원을 할인해준다. 또한 쏘나타 또는 그랜저를 보유한 고객에게는 아슬란 구입 때 5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수입차를 보유한 고객이 현대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각각 50만원(에쿠스, 제네시스, 아슬란), 30만원(벨로스터, i30, i40)을 할인해준다. 또한 현대캐피탈 리스·렌탈을 통해 에쿠스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현대카드 기프트카드 100만원권을 증정한다.

기아차도 지난달에 비해 할인금액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거의 전 차종에 걸쳐 할인을 제공하고 있어 현대차보다 조건이 좋다. 차종별로 보면 모닝 30만원, K3 50만원, K5 가솔린 100만원, K5 LPI 50만원, K7 50만원, K7 700h 100만원, 스포티지R 20만원을 각각 할인해준다. 특히 K5 500h는 '200만원 할인' 또는 '100만원 할인+1.5% 저금리'가 제공돼 가장 조건이 좋다.

이외에도 기아차는 이번 달부터 전 차종 할부 기준금리를 평균 1% 포인트 낮춘다. 원리금 균등납부 방식으로 기아차를 구입하는 고객이 선수금 15% 이상을 납부할 경우 기존 5.9% 금리가 4.9%로(12/24/36개월), 6.9%는(48개월) 5.9%로, 7.5%(60개월)는 5.9%로 할부금리가 평균 약 1% 포인트 인하된다.

한국GM은 지난달보다 판매조건이 좋다. 쉐보레 스파크와 크루즈 등 2개 차종 구입 때 최대 1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3년간 3회 엔진오일 무료교환 혜택과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중복 적용해 준다. 이는 올해 한국GM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의 명칭을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Chevrolet Complete Care)'로 바꾸면서 1월 한 달 간 쉐보레 스파크 혹은 크루즈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더불어 0% 무이자할부 및 무이자 유예할부 프로그램을 1월에도 지속하고, 스파크와 크루즈 차량에 대해 선수금이 없는 1% 할부 프로그램을 자사 최초로 시행한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인천공항 작년 이용객 역대 최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승객이 개항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4년 항공운송 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지난해 인천공항 여객수는 전년보다 9.7% 늘어난 4551만명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제여객은 4490만명으로, 전년보다 10.1% 늘었다. /연합뉴스

수입차 판매 19만대 '폭스바겐 티구안' 1위

2014년에 국내에 판매된 수입차가 총 19만6359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7일 낸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11월 등록보다 0.9% 증가한 1만7120대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한 2014년 연간 누적 판매는 2013년 누적 15만6497대보다 25.5% 포인트 늘어난 19만6359대다.

2014년 연간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BMW가 4만174대로 선두를 지켰다. 메르세데스 벤츠 3만5213대, 폭스바겐 3만719대, 아우디 2만7647대 등 독일 4사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포드 8718대, 토요타 6840대, 미니 6572대 등이 뒤를 이었다.

단일 차종 베스트셀링 모델은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8106대)이었고, BMW 520d(6546대), 메르세데스 벤츠 E 220 CDI(5921대)가 2~3위를 차지했다. /임의택기자

연봉 7500만원 맞벌이 세금 75만원 더 낸다

정부 발표안보다 부담 커져 논란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와 맞벌이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 때 지난해보다 각각 60만원과 7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 발표안보다 평균 33만원 늘어난 수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연봉 7000만~8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의 세금 증가액이 약 33만원일 것이라던 지난해 정부 발표와 달리 세부담 증가액이 60만~75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근로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결과다. 올해 연말정산 때의 세금은 지난해보다 59만9000여원 더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 직장인이 맞벌이 가구일 때에도 지난해보다 세 부담이 74만8000여원 증가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기존 과세표준 이전단계에서 공제되던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늘어났다"며 "특히 정부 발표와 달리 연봉 70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맞벌이 여부, 자녀 수, 기타 공제액수 등에 따라서 증세효과의 개인편차가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이트에서 조회와 출력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모두 12가지 항목이다.

이와더불어 모의계산 등을 할 수 있는 연말정산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배포중이다.

/이국명기자 kmlee@

새빨간 그녀,
내옆에 둬야겠다!
tvN 금토드라마
하트투하트
내일 저녁 8시 30분 tvN 첫 방송
연출 이윤정 ♥ 극본 이정아 고선희 ♥ 출연 최강희 천정명 이재윤 안소희

금융권, VIP고객 경쟁 뜨겁다

주요은행들 프라이빗뱅킹 강화 나서

주요 은행들이 새해부터 'VIP 고객'을 잡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 저금리시대, 지갑을 여는 건 결국 부자들이란 판단에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KB국민은행은 올해 프라이빗뱅킹(PB) 채널 영업 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PB 채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PB센터와 타 채널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실시했던 PB센터와 영업점간 협업을 전 PB센터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민은행은 기존 VIP 고객을 위한 전용 공간인 VIP라운지를 PB센터 수준의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한 프리미엄 VIP라운지 '스타테이블 라운지'를 전국 21개 영업점에서 시행하고 있다.

'스타테이블 라운지'는 기존 VIP라운지에서 제공하는 공간적인 편의서비스 외에 고자산고객에게만 주로 제공됐던 맞춤형 PB전용 상품을 일반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출시된 자산관리 서비스 브랜드다. 국민은행은 분야별 전문가의 전담 자문서비스(세무, 부동산, 법률,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통한 최적의 금융 솔루션과 차별화된 고객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추가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소수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관리 서비스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자산관리서비스'의 장기 사업전략에 맞춰 우선 '스타테이블 라운지'는 서울 12개점, 수도권 4개점, 지방 5개점의 총 21개점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올해 PB 서비스 강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올해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인력 보강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PB 서비스가 부자 고객 자녀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신한은행의 '신한PB 2세 스쿨'은 부자 고객 자녀들을 겨냥한 서비스다. 일년에 한 번씩 PB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재테크 교육과 교양강좌 등을 열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부자 고객들 2세까지 챙기는 이유는 부자 고객의 은행 손익 기여도가 대중 고객보다 훨씬 크다"면서 "2세들까지 잠재적 고객으로 확보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기업은행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해피네이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VIP 고객이나 고객의 직계비속이 신생아를 출생했을 때 국내 전문 작명가에게 의뢰해 이름을 지어주는 서비스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착한 프로젝트' 진행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7일 서울시와 손잡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소리 재능기부 캠페인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시즌4'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SC은행은 서울 시청 신청사 1층 로비에 '착한 목소리 기부존'을 설치했으며, 시민들의 목소리 기부를 받아 서울시 문화유산 묘사 해설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SC은행 제공

새해 돈 들어온 펀드는 '채권·연금'

펀드 환매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해 펀드 투자에는 안정적인 성향이 두드러졌다. 채권 투자 위주거나 연금용인 펀드에만 돈이 들어왔다.

7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총 2768개 펀드 중에서 연초부터 지난 6일까지 자금이 100억원 이상 유입된 펀드는 9개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1000억원의 자금이 들어온 펀드는 'NH-CA Allset모아모아30[채혼]'이었다. 이 상품은 펀드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최대 30%까지 한정하고 나머지는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어 'KB퇴직연금배당40자(채혼)C'에 444억원이 들어왔고 '한국밸류10년투자퇴직연금 1(채혼)'에 323억원, 'NH-CA Allset모아모아15[채혼]'에 300억원 등이 유입됐다.

100억원대 자금이 새로 들어온 상품으로는 각각 129억원씩 들어온 '미래에셋퇴직플랜자 1(채권)종류C'와 '한화단기국공채(채권) 종류C'가 있다.

또 'NH-CA Allset스마트베타+[주식]Class Ci'에 116억원, '신영퇴직연금배당채권자(채혼)C형'에 105억원, 'NH-CA Allset스마트인베스터5.0분할매수[주혼-재간접] Class C'에 100억원 순이었다.

모두 채권형이거나 채권 혼합형, 퇴직연금형 펀드라는 공통점이 있다.

NH농협금융의 '올셋(Allset)펀드'가 절반에 육박한 4개를 차지한 점도 눈에 띈다. 올셋펀드는 NH-CA자산운용이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과 공동 개발한 상품으로서 기존 투자성과가 좋은 펀드나 이를 토대로 만든 새 상품 총 6종이 포함된다.

박동우 NH-CA자산운용 리테일마케팅본부 팀장은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맞아 그동안 공격적 주식투자를 많이 했던 투자자들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 라인업을 갖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KB국민은행, 소외계층 초청 '희망 가족 힐링캠프' KB국민은행은 7일 청소년 공부방 조성사업인 'KB국민은행 희망공간 만들기' 수혜 청소년과 가족을 초청해 희망가족 힐링캠프를 가졌다고 밝혔다. '희망공간 만들기'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공부방을 조성해 주는 사업. 현재까지 전국 280가구의 청소년들이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선물 받았다. 올해도 장애 청소년 20명을 포함한 전국 100개 가구 청소년의 공부방을 조성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제공

하나금융 vs 외환노조, 조기통합 난항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이번엔 비정규직 전환 문제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최근 외환은행 노조에 은행 통합 후 1개월 내에 두 은행의 무기계약직 34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하나금융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을 위한 대화는 외환은행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파행을 거듭해 현재 대화중단 상태"라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경영진이 양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무기계약직은 각각 1400여명, 2000여명으로 노조가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외환은행 무기계약직은 대졸 신입사원에 준하는 6급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대해 외환 노조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6급 전환'은 지난 2013년 10월 합의된 사항"이라며 "'정규직 전환' 문제는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에 포함된 사항도 아니고, 본격적인 통합논의의 전제조건이 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지난해 어음 부도율 13년 만에 최악

지난해 연평균 어음 부도율이 1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7일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어음 교환액(3178조2505억원) 중 부도액은 6조232억원으로, 연평균 부도율이 0.19%(전자결제 조정전)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1년(0.38%) 이후 1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STX와 동양그룹 사태의 영향도 있지만,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기업 경영 사정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어음 부도율은 지난 1996년 0.17%에서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 0.52%로 치솟고 2001년까지는 고공행진을 하다가 2002년에 0.11%로 떨어졌다.

2006년과 2007년에도 0.1%초반대(각각 0.11%)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인 2008~2010년 0.1%중반대(0.14~0.15%)로 높다가 2011년과 2012년에 0.1%초반대로 낮아졌다. 이후 STX와 동양 사태가 줄줄이 터진 2013년(0.14%)부터 다시 상승했다.

한편 어음부도율은 어음교환소에 교환 회부된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 각종 어음과 수표 중 지급되지 않고 부도가 난 금액을 교환액으로 나눈 것이다. 어음 사용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과거보다 상징적인 의미는 약해졌지만 기업의 자금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김민지기자

이달 금리 인하설…생보사 역마진 '고심'

고금리 상품 비중 많은 대형사 중심으로 위기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일주일여 남은 가운데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금리 상품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업계가 또다시 받는 보험료보다 지불해야 하는 보험금이 더 많은 '역마진'을 우려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은이 오는 15일 금통위 회의를 열고, 경기부양을 위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5일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 서도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국가간 상호연계성이 크게 증대된 상황에서 어느 한 국가의 금융위험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추가 금리 인하를 위한 여지를 남겼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세계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국내 수출기업들도 회복이 더디다"며 "유가하락 등 물가부담도 적은 가운데 금리인하를 통한 추가 경기부양을 위해 이달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2000년대 초반 6% 이상 확정금리로 판매한 장기 저축성보험으로 역마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보사의 지난해 상반기 5% 이상 확정이율 계약액은 140조 6000억원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삼성·한화생명의 경우 확정형 상품 가운데 확정금리 6% 이상 '역마진' 상품 비중은 각각 무려 80%와 67%에 달한다. 이 기간 보험료적립금 평균이율은 4.9%인 반면 운용자산이익률은 4.5%에 불과하다.

생보사의 자산운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공채 역시 5년 만기 국공채수익률은 3.0%를 넘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역마진 우려로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형사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서도 "추가로 금리가 하락하면 장기적으로 생보사의 실적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농협금융, 대표투자상품 '올셋 펀드' 내놔 NH농협금융은 7일 광화문NH금융플러스센터에서 대표투자상품인 '올셋(Allset) 펀드' 가입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종룡 회장은 "이 펀드는 '자산운용의 명가'라는 NH농협금융의 이미지를 시장에 각인할 수 있는 핵심상품"이라며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NH농협금융의 고객기반을 공고히 하는 획기적인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주하 NH농협은행장과 임종룡 NH금융지주 회장, 김세진 한국펀드평가 사장,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 이태재 NH-CA자산운용 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금융 제공

KB국민카드, 지방세 납부고객 대상 이벤트

KB국민카드는 7일 자동차세 등 지방세 카드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납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달 2일까지 행사에 응모 후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한 고객은 캐시백과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추첨을 통해 선정된 30명에게는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방세 납부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행사기간 중 KB국민 체크카드로 1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고객 전원에게는 포인트 3000점이 적립된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고객에게는 무이자할부와 할부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1월 중 신용카드(KB국민 기업카드, KB국민 비씨카드, KB국민 선불카드 제외)로 지방세를 납부한 고객에게 2개월 또는 3개월 할부 이용 시 할부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6개월 할부는 2회차부터, 10개월 할부는 3회차부터 할부 수수료가 각각 면제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잘 활용하면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물론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카드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미래에셋생명 새 슬로건 선포식

미래에셋생명은 7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 센터원에서 '당신의 행복한 미래를 생각합니다' 새 슬로건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09년부터 '은퇴설계의 명가'라는 슬로건을 사용해왔지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따뜻하고 고객지향적인 생애종합설계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새 슬로건에는 '나이를 사랑하는 방법'(LoveAge)과 연결해 모든 연령대별 행복의 차이를 이해하고, 재무설계에 국한되지 않는 일상의 행복까지 지원하고 설계한다는 기업 비전을 담았다.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이번 슬로건 변경은 회사의 중장기 비전을 반영한 혁신과 선도의 시발점"이라며 "슬로건에서 제시하는 행복한 미래라는 개념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장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한화손보, '무배당 치아보험' 출시

보철·치수치료 동시 보장

한화손해보험은 올해 첫 신상품으로 보철치료와 치수치료(신경치료)까지 보장하는 '무배당 하얀미소 치아보험'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임플란트·브릿지·틀니 등 고비용 보철치료의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고급 플랜가입시) 보장한다. 자주 받는 보존 및 충전치료도 연간 한도에 관계없이(단, 크라운은 연 3개 한도) 치아 당 최대 2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일반적인 신경치료인 치수치료에 대해서도 영구치에 대한 진단확정 후, 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당 2만원까지 보장을 해준다.

적립부분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 중 작은 금액의 80% 한도 내에서 무이자 중도인출이 가능해 치아관리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갱신과 비갱신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가입연령은 최저 만 15세부터 만 55세까지다. 납입기간은 전기납, 5년부터 5년 단위로 20년까지, 보험기간은 연만기, 65세 만기로 설계할 수 있다.

임동일 한화손해보험 상품업무팀 팀장은 "치과치료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22.4%에 불과하고 실손의료보험에서도 대부분 보장이 안 됨에 따라 가계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이 상품은 이러한 고비용 치과치료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됐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다음카카오 100일… 모바일 금융·O2O 강화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 상반기 중 오프라인 결제 지원

'다음카카오 데이 100'. 지난해 10월 1일 '다음카카오 데이 1'이란 구호로 시작한 다음카카오가 8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당시 원조 포털 다음과 모바일 공룡 카카오의 만남은 일약 시가총액 1위 기업을 낳으며 IT업계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하지만 메시지 검열 논란과 대표 경찰 소환 등 출범 초기부터 불거진 각종 악재 속에 허니문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출범하자마자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다"면서 "출범 100일은 의미있는 날이지만 회사 차원의 별도 행사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새해에도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출범 비전 '새로운 연결,새로운 세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비전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정보,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람과 사물의 연결을 뜻한다.

7일 다음카카오 새해 계획에 따르면 합병 시 발표한 4가지 연결 중 '사람과 사물(IoT)'과 '온라인과 오프라인(O2O)'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음카카오는 최근 어린이집 모바일 알림장 서비스로 유명한 기업 '키즈노트'를 인수했다. 키즈노트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가 PC나 스마트기기로 아이의 일상, 식단, 공지사항 등을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부모가 모바일 기기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의 30%에 이르는 1만4000개 기관이 키즈노트 회원이다.

다음카카오 성장전략파트의 주영준 투자담당은 "다음카카오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과 O2O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대표적 사례"고 설명했다

한편 모바일 금융 서비스 확산에도 적극 나선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반 금융거래 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송금, 결제, 현금카드 이외에 추가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바일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는 상반기 중 오프라인 결제를 지원한다.

포털 서비스의 경우 모바일 강화와 맞춤 정보 추천 기능으로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카카오톡 프라이버시 문제는 계속 보완해갈 것"이라며 "웹툰,게임,유통 분야 등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CES2015 키워드는 '협업'

IoT 시장 선점위해 개방·연대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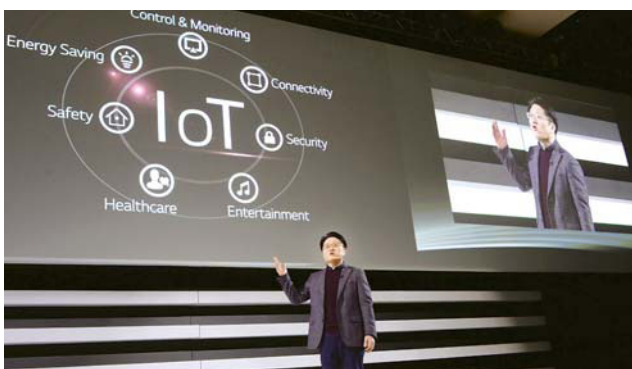
올해 CES의 키워드로 '협업'이 떠올랐다. 6일(현지시간)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2015'에 참석한 삼성전자·LG전자 등 주요 전자업체 대표들은 개방성을 언급하며 서로간의 협업을 제안했다. 모든 제품이 연결되는 IoT 시대에는 다른 제품과의 호환이 중요해지므로 경쟁업체간에 힘을 모아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CES2015의 기조연설을 맡은 윤부근 삼성전자 대표는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본격적으로 IoT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핵심부품과 기기들을 확대하고 ICT 산업계의 호환성 확보와 함께 이종산업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IoT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려면 서로 다른 기기와 플랫폼 사이 장벽이 없어야 한다"며 개방성을 강조했다.

진정한 IoT를 위해서는 이종산업 간 협업이 활발히 일어나야 하므로 자동차·교육·의료·금융·공공서비스 등 산업 분야와 전방위 협업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삼성전자는 개발자들이 삼성전자의 개방형 플랫폼에 맘껏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개발자 대회와 스타트업 발굴 등 전체적인 개발자 지원에 1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안승권 사장 역시 이날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IoT 플랫폼 차별화, 기기 간 연결성 강화, 사물인터넷 생태계 확장 등 개방화 전략을 전개해 사물인터넷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올씬 얼라이언스'의 사물인터넷 플랫폼 '올조인', 사물인터넷 글로벌 표준화 협의체인 '원엠투엠'과의 협력도 강화해 LG 제품과 타 브랜드 기기와의 호환성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 TV분야에서도 경쟁사간 동맹이 결성됐다. 삼성전자·LG전자·소니·파나소닉·샤프 등 글로벌 TV 제조사와 디즈니·20세기 폭스·워너 브라더스 등 헐리우드 영화사는 'UHD 얼라이언스'를 공동 출범한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UHD 얼라이언스에는 디렉티비,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콘텐츠 제공 업체와 돌비, 테크니컬러 등 포스트 프로덕션 업체도 함께 참여한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LG전자 CTO 안승권 사장이 5일(현지시간) 'LG전자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전략제품과 혁신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이것이 3D프린터기로 만든 에펠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3D프린터 제조업체인 ㈜로킷을 방문해 3D프린트기로 만든 에펠탑을 살펴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구로 디지털밸리의 3D프린터 제조업체인 ㈜로킷을 방문해 주요 신산업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R&D 지원 전반의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두바이유 '50달러' 線도 무너져

KDI "국내 경제 성장률 0.2%↑ 물가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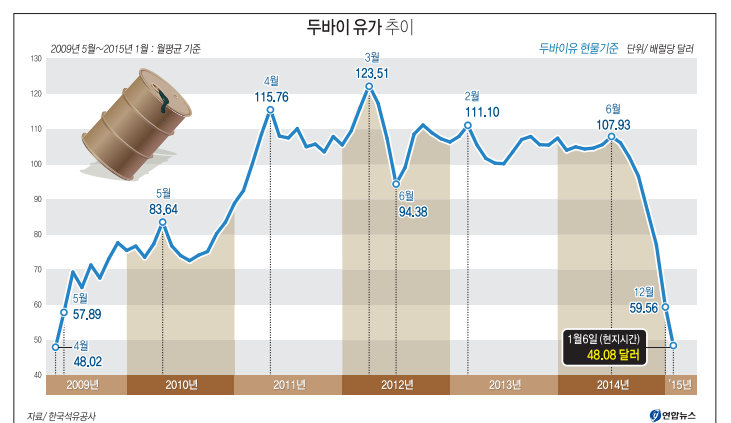
두바이유 가격이 또 2 달러 넘게 내리면서 배럴당 50 달러선이 붕괴돼 48.08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는 6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전날 배럴당 50.98 달러에서 2.90 달러 내려 48.08 달러에 거래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09년 4월28일 배럴당 48.02 달러 이후 최저가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배럴당 47.93 달러에 거래되면서 50달러 밑으로 내려왔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는 2.01달러 내려 51.10 달러를 기록했다.

유가가 폭락하는 것은 석유수출기구(OPEC) 회원국이 원유 감산 불가방침을 결정한 상태에서 수요대비 공급 우위 전망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는 러시아와 이라크에서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데다 서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생산이 늘어나 유가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 **60 달러대면 성장률 0.1%↑**

이와 관련 KDI(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원은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49 달러까지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오르고, 물가상승률은 0.4%포인트 하락, 경상수지는 102억1000만 달러 정도 증가할 것"이라며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에 보고했다.

보고서는 유가가 연간 배럴당 60 달러대 초반에 머무르고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하고 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떨어진다고 내다봤다.

또 2000년대 국제유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경제 전체의 구매력은 9조5000억원(GDP 대비 0.76%)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이 석유제품 가격 감소분을 비석유제품 가격에는 전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 전체에서 늘어나는 구매력 10조4000억원 중 9조4000억원이 기업에 귀속되는 '기업 독식 현상'이 예측됐다. /김민준기자 mjkim@

우리의 혁명은 숲에서 시작된다
ROBIN HOOD
DAS MUSICAL
로빈훗
2015.1.23-3.29 디큐브아트센터
유준상 서영주 이건명 엄기준 조순창 박진우 박성환 규현 양요섭 서지영 김아선 김여진 다나 외
|프로듀서|김선미 |연출|왕용범 |음악감독|이성준 |안무|서병구 |조명디자인|민경수 |무대디자인|서숙진 |음향디자인|권도경 |영상디자인|송승규 |의상디자인|한정임 |분장디자인|양희선 |소품디자인|김상희
Music : MARTIN DOEPKE Book : ANDREA FRIEDRICHS & HANS HOLZBRECHER Lyrics : ELKE SCHLIMBACH & GRANT STEVENS Orchestrations : HUMMIE MAN & MARTIN DOEPKE
Producer Original Production : ANDREA FRIEDRICHS Worldwide General Management : WILLEM METZ MANAGEMENT
WMM
|주최| SBS |투자| 하나투어 ISU 이수창업투자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kibo 기술보증기금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YES24.COM 티켓 (1544-6399) 하나 Free 티켓 (1566-6668)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CLIP service (1577-3363) |홍보| SHOWHOLIC

IT제품도 스펙 넘어 '유지비' 경쟁시대

경제성·유지비 뛰어난 레이저 프린터 '대세'로

잉크젯 제품이 주를 이루던 프린터 업계에 최근 '레이저 제품' 바람이 불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높은 가격, 느린 출력속도, 유지비용 부담 등으로 기업이나 일부 전문가 집단에서 사용되던 레이저 프린터·복합기가 이제 소규모 사무실은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그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제품 성능은 강화된 반면 가격과 유지비용은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주요 오픈마켓 3사(11번가, 옥션, G마켓)의 레이저 제품 판매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잉크젯 시장은 2% 성장에 그친 한편, 레이저 시장은 약 10%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판매된 주요 업체(후지제록스 프린터스, HP, 캐논, 엡손, 신도리코, 삼성, 브라더 등)의 레이저 프린터·복합기 판매 대수는 총 30만 9283대로 지난해(총 28만 6780대인)보다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프린터 업체들은 소비 트렌드에 맞춘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후지제록스프린터스의 가정용 레이저 프린터인 '다큐프린트 P215b'는 가격대비성능이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다. 레이저 컬러 복합기인 'CM215 fw'는 레이저 제품 중 최고의 인기모델이다. 기존 레이저프린터는 가격대가 20만원을 훌쩍 넘었지만 '다큐프린트 P215b'의 제품은 5만원대에 불과하다. 분당 24장의 인쇄속도와 1200x1200dpi의 해상도를 지원하며 EA(Emulsion Aggreation)-Eco 토너가 사용돼 전력 소비량이 최대 20%까지 절감된다. 케이블 없이 다양한 공간에서 인쇄 및 스캔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 모바일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전자 '스마트프린터 NFC M2022시리즈'(왼쪽), 후지제록스 프린터스 CM215fw.

삼성전자는 모바일 오피스 지원을 위한 흑백 레이저 프린터·복합기 '스마트프린터 NFC M2022 시리즈'를 출시했다. 인쇄·복사·스캔·팩스 등의 기능과 함께 근거리무선통신(NFC)이 적용돼 스마트폰 속 콘텐츠를 바로 출력할 수 있으며, 구글 클라우드 등도 지원한다.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은 A3 모노 레이저 프린터 'LBP 8140Kdn' 시리즈 6종을 출시했다. 이 시리즈는 1200dpi 상당의 해상도로, 최대 2000매까지 적재 가능한 대용량 급지(5Way)를 탑재할 수 있다.

브라더 인터내셔널코리아는 흑백 레이저 프린터 복합기 3종(HL-L2365DW, MFC-L2700D, MFC-L2700DW)과 고속 컬러 레이저 복합기 1종(MFC-L8600CDW)을 최근 선보였다. 흑백 레이저 프린터 시리즈는 출력 속도와 토너 절약 측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제품이다.

한기문 후지제록스 프린터스 마케팅 부장은 "레이저 제품의 경우 유지비용이 저렴한 것은 물론 잉크 번짐 등이 없어 고해상도의 선명한 이미지 출력 기능이 잉크젯 보다 뛰어나다"며 "레이저 제품이 점차 다양화되면서 합리적인 가격대가 시장에 형성돼 있으며, 앞으로도 레이저 프린터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넷마블게임즈 자회사 기업 공개

3곳… 3분기부터

넷마블게임즈 개발 자회사 3곳이 상장을 준비한다.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는 넷마블몬스터, 넷마블엔투, 넷마블넥서스 등 개발 자회사 3곳에 대한 기업공개(IPO)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넷마블은 넷마블몬스터와 넷마블엔투의 상장 주관사로 각각 삼성증권과 대우증권을 선정하고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밟은 후 빠르면 올 3분기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를 추진한다. 넷마블넥서스는 2분기에 주관사를 선정하고 2016년 상반기에 기업공개를 할 예정이다.

앞서 넷마블몬스터는 '다함께 퐁퐁퐁', 넷마블엔투는 '모두의 마블', 넷마블넥서스는 '세븐 나이츠'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넷마블 측은 "이번 상장 추진은 유망한 중소 개발사를 발굴·육성해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넷마블 상생전략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개발사들의 상장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태블릿 전용 '올레 순액 데이터' 요금제 KT는 요금 위약금 없이 태블릿 PC와 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올레 순액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올레 순액 데이터' 요금제는 총 6종의 3G와 LTE 요금이 출시되며, 고객들은 별도의 약정 기간과 위약금 없이 평생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 제공

네이버 모바일 검색 서비스 개편

네이버 모바일 검색 서비스가 사용자 편의에 맞게 개편됐다.

네이버는 이용자들의 모바일 사용 패턴을 대거 반영한 모바일 통합 검색 서비스를 7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모바일 검색 서비스는 '짐작할 수 있게' '읽기 쉽게' '기능 중심으로' '수학적으로' '경험이 이어지게' 등의 다섯 키워드를 중심으로 개편됐다.

먼저 원하는 정보를 시인성 높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결과 내 각각의 콘텐츠들을 분리된 하나의 카드 형태로 구성했다. 원하는 정보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추가적으로 찾는 다양한 정보들도 제공해, 검색 편의성을 배가했다.

또 기존의 세로 형태 검색결과 제공에 더불어 동일 카테고리에서는 가로로 관련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게 마련했다.

한편 네이버는 개편 이전의 화면을 이용하고 싶은 사용자를 위해 '이전 버전으로 보기' 기능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장윤희기자

체감면적 시대… 발코니 확장 평면이 뜬다

4베이·4룸, 3면 설계 구조 인기

과거 창고 정도로 여겨졌던 아파트 발코니가 최근 몇 년 사이 집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뜨고 있다. 발코니가 많을수록 확장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져, 같은 면적의 아파트라도 실제 활용 가능한 공간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용면적(이하 동일)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4베이·4룸을 도입하는 평면이 늘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달 84㎡ 단일 면적으로 이뤄진 '수원 호매실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567가구를 분양하면서 전 세대 4베이·4룸 구조를 적용했다. 또 현대산업개발 '천안 백석3차 아이파크'와 보광건설 '제주 강정지구 골드클래스' 84㎡도 같은 평면을 선보였다.

베이란 아파트 전면부에 배치된 방이나 거실 등 벽면으로 나뉘어 독립된 공간의 수를 말한다. 각 공간마다 발코니가 따라 붙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베이가 많을수록 확장할 수 있는 서비스면적이 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한 단지 안에서도 발코니가 많은 4베이·4룸이 선호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말 경기 이천시에서 공급된 '이천 설봉3차 푸르지오'의 경우 4베이·4룸이 적용된 84A타입은 1순위 마감된 반면, 그렇지 않은 B타입은 3순위에서야 모집가구수를 채우기도 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단지별 입지·브랜드는 물론이고,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평면에 따라 선호도가 갈리곤 한다"며 "판매율을 높여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 인기가 많은 중소형 4베이·4룸 평면을 주로 공급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4베이·4룸 구조.

세대 전·후면에 측면까지 3개 벽에 걸쳐 발코니를 넣은 3면 발코니 평면도 인기다. 전면과 후면 2면에만 발코니가 들어가는 평면에 비해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1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평택 소사벌지구에서 지난해 분양된 '평택 소사벌지구 반도유보라'의 경우 3면 발코니를 설치한 84㎡B의 청약경쟁률은 3.61대 1을 기록했다. 3면 발코니가 아닌 A타입(1.27대 1)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GS건설 '김포 한강 센트럴자이'는 100㎡ 107가구에 3면 발코니를 적용, 확장시 37㎡의 추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동원개발의 '양산신도시3차 동원로얄듀크 비스타' 역시 84㎡에 3면 발코니를 넣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까다로워진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최소의 비용으로 공간 활용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평면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며 "4베이·4룸, 3면 발코니 평면이 서비스면적을 극대화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확장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형적인 구조가 되기도 하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윤리경영 실천 건설사 선정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2014년도 '건설업윤리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제공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택지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무조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물가상승률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뒤 지정하도록 했다. /김두탁기자 kimdt@

안산 MTV 초입 '스타캐슬' 오피스텔 분양

경기 안산 초지동의 유일한 오피스텔인 '스타캐슬'이 분양된다. 지하 1층~지상 11층, 1개동, 총 280실 규모다.

시화·반월공단을 비롯해 2016년 완공될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와 인접해 약 36만 명의 배후수요가 기대된다. 여기에 송산그린시티와 연결되는 77번국도(다리)와 소사원시선 원시역이 개통 예정이다.

이마트가 도보 1분 거리이고, 선시공 후분양 돼 오는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통상 계약 후 2년 후 수익이 발생하는 선분양 오피스텔에 비해 투자금 회수가 빠르다. 분양가는 3.3㎡당 500만원대로 책정됐다.

부동산 관계자는 "선시공한 오피스텔은 투자 위험이 낮은 데다, 특히 스타캐슬의 경우 안산 공단 초입에 들어서는 유일한 오피스텔로 벌써부터 임대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분양 및 임대문의 031)710-7093 /박선옥기자

스타캐슬 투시도.

전국 1월 입주 29곳 1만5885가구

1월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국민임대 제외) 입주물량은 총 29곳 1만5885가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입주물량인 1만3183가구와 비교해 2702가구가 늘었고 지난해 1월 1만1754가구에 비해서는 4131가구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총 12곳 532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 3곳 1352구, 경기 9곳 3974가구다. 12월 4027가구에 비해서는 1299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지방은 총 17곳 1만55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대구가 2곳 1929가구로 입주물량이 가장 많고, 충남 1곳 1562가구, 부산 4곳 1436가구, 세종 2곳 1385가구, 광주 2곳 1374가구, 경남 3곳 1324가구, 충북 1곳 749가구, 전북 1곳 436가구, 전남 1곳 364가구 등 순이다. 12월 9156가구에 비해서는 1403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동탄2신도시는 올해 입주 물량이 꾸준하게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하게 전월세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 남부가 생활권인 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김두탁기자

찬바람 불자 따뜻한 국·찌개 등 간편식 인기

냉장 레토르트, '컵 형태' 등 다양

최근 동장군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기온이 연일 영하로 내려가면서 따뜻한 밥상을 차릴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들이 주목 받고 있다. 최근에는 데우기만 하면 뜨겁게 즐길 수 있는 가정간편식부터 집에 있는 재료만 더하면 쉽게 찌개를 끓일 수 있게 도와주는 재료양념까지 식품업계의 다양한 제품들이 인기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추워진 날씨의 영향을 받아 따뜻하게 즐기는 간편식 제품군의 매출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완제품 형태는 물론 관련 제품을 활용해 따뜻한 밥상을 차릴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들의 지속적인 개발 및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데우기만 하면 되는 찌개

대상FNF 종가집의 '데이즈 묵은지 찌개 3종'은 100% 국내산 재료로 만들어 1년간 제대로 숙성한 묵은지를 넣어 깊은 맛을 살린 제품으로 데우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뜨거운 찌개를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콩비지의 구수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묵은지 콩비지찌개', 담백한 참치를 넣은 '묵은지 참치 김치찌개', '묵은지 돼지고기 김치찌개' 등으로 구성됐다.

아워홈은 해물의 시원한 맛이 살아있는 '얼큰 수산탕' 3종으로 대구탕·동태탕·알탕을 선보이고 있다. 레토르트 형태로 장기보관이 가능하고 파우치 통째로 뜨거운 물에 중탕하거나 내용물을 냄비에 넣어 끓이면 바로 먹을 수 있다.

◆야외에서 물만 부으면 간편 컵국

세븐일레븐의 가정간편식 전문 브랜드 '맛있는 행복'이 출시한 '간편 국밥 2종'은 황태해장국밥과 육개장국밥으로 구성됐다. 황태해장국밥은 황태채와 콩나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국물팩(300g)과 햇반(130g)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으며, 1회용 숟가락도 포함돼 있다.

미니스톱은 어묵국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김치 제육 & 어묵한컵 도시락'을 출시했다. 어묵국과 매콤한 김치제육 볶음, 계란말이, 소시지 야채볶음, 게맛살 마카로니 샐러드를 함께 구성해 도시락 하나만 구매하면 따뜻한 국물과 밥, 반찬을 같이 먹을 수 있다.

사조대림의 '대림 선 즉석포차 컵어묵 2종'은 어묵탕의 맛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이 제품은 전자레인지에 데워먹던 기존의 컵어묵과 달리 종이컵 형태를 적용해 뜨거운 물을 붓기만 하면 따뜻한 어묵탕을 맛볼 수 있다.

◆간편재료로 즐기는 찌개 요리

청정원의 따로 양념하지 않아도 된장찌개를 만들 수 있는 '순창 고깃집 된장 찌개양념'은 별도의 육수와 양념 없이 재료와 함께 끓이기만 하면 된장찌개가 완성되는 제품이다. 전통 재래식 된장에 쇠고기 사태로 우려낸 육수와 청양고추를 넣어 고기전문점에서 접할 수 있는 된장찌개 맛을 낸다.

동원F&B의 '매운김치찌개용 참치'는 간편하게 참치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다. 이 제품에는 김치찌개 소스와 홍고추 등 양념이 들어있어 김치와 물만 있으면 별도의 양념 없이 간편하게 참치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20대는 전자담배, 40대는 은단"

금연 결심 애연가↑

새해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온라인 몰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금연보조상품 판매가 많게는 세 자릿 수 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연령 별로 선호하는 금연 상품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 전자 담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18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30대의 구매 비중이 41.7%에 달해 20대(7.8%), 40대(23.9%)에 비해 선호도가 높았다.

40대는 '은단'을 많이 구매했다. 같은 기간 'MD가 간다'를 통해 판매했던 '고려은단 은단 10g*5ea' 는 준비 수량 500여개가 단시간에 품절되기도 했다. 해당 제품의 연령대 별 판매 구성비는 20대 3.2%, 30대 29.6%, 40대 44.1% 등이었다.

롯데닷컴 관계자는 "30대의 경우 전자 담배를 이용해 당장에 끊기 어려운 흡연 습관을 서서히 끊으려는 이들이 많은 반면 건강에 관심이 높은 40대는 구취 제거 효과는 물론 생약 성분이 함유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은단을 금연보조제로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 문구나 이미지를 적용한 인테리어 제품도 인기를 얻고 있다. 금연 표지판, 금연 시계 등 금연 관련 상품은 최근 일주일 간 매출이 지난해 보다 10%가량 상승했다. 20대부터 40대까지 고른 인기 분포를 보였다. /김수정기자

겨울방학·신학기 특수 채비 나섰다

유통업계, 관련 상품 기획전·이벤트 봇물

겨울방학과 신학기를 맞아 유통 업계가 학생을 타깃으로 마케팅에 돌입했다.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대학교가 겨울 방학에 돌입하자 참고서 등 관련 상품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미리 준비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신학기까지 두 달가량 남았지만 기획전을 쏟아내고 있다.

CJ오쇼핑은 이번 주부터 관련 상품으로 방송을 집중 편성하는 한편, 온라인 몰에서는 특집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11일 '삼성 노트북 특집 방송'과 12일 디지털카메라 '카시오 TR52' 등 학업·취미 생활과 연계된 디지털 기기를 판매한다.

또 8일 손앤박의 '매직 세럼 파운데이션 세트', 10일 퀼팅 스타일 '퍼스트룩 에디션 구스다운 코트' 등 대학 입학하는 여대생을 위한 패션·뷰티 상품도 준비돼 있다.

이와 함께 CJ 몰에서는 다음 달 28일까지 '삼성전자 S 아카데미'를 통해 노트북, 올인원 PC, 데스크톱 패키지 등을 최대 8% 할인한다.

G마켓은 '2015 릴레이 특가'를 통해 8일 신학기 선물용 휠라 가방을 50% 할인 판매한다.

겨울 방학 시즌을 맞아 관련 상품을 중심으로 기획한 이벤트가 한창이다.

인터파크 도서는 3월 말까지 참고서 구매 금액 별로 8종의 사은품을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 참고서 구매법'을 실시한다. 사은품 대신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강강술래, 31일까지 '따뜻한 겨울나기' 이벤트

삼원온수매트, 천천향 입장권 선물
동남아 여행패키지 상품권도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고객들을 대상으로 푸짐한 경품을 증정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이벤트를 벌인다.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sullai.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두 개의 가열통으로 난방속도가 더욱 빨라진 삼원온스파의 최고급 온수매트 퀸(35만원 상당)과 온천·스파를 즐기며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리솜스파캐슬 '천천향'의 이용권을 증정한다.

삼원온스파는 국내 최초 KC인증마크·EMF전자기장환경인증 획득과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기술혁신부분 수상 업체로 모터 없이 물을 데워 순환시키는 국내 유일의 저소음·절전형 '진공흡입방식'을 보유한 곳이다.

서울에서 90분 거리의 천천향은 100% 천연 게르마늄 온천수(49℃)가 매일 공급돼 건강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아토피 피부를 가진 아이들은 물론 신경통·관절염·성인병 등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엄마들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전 매장에서는 1월 말까지 명함 또는 이름·연락처를 적어 신청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 동남아 여행패키지 상품권(2명·동반 1인), 2등 한우불고기2호 선물세트(30명), 3등은 냉면상품권 1매(100명)를 증정하는 청양(靑羊)띠해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신분증을 소지한 양띠 고객이나 눈썰매장·스키장 티켓을 지참한 고객에게 냉면 상품권(1매)을 무료 증정한다.(중복적용 불가) /정영일기자

칠성사이다 등 7개 제품 가격 인상

롯데칠성음료가 오는 9일부터 대표 상품인 칠성사이다 등 일부 음료제품 가격을 평균 6.4%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격 조정 대상은 칠성사이다, 펩시콜라·칸타타·게토레이 등 7개 주요 제품군이다.

제품 별로 칠성사이다가 7.0%, 펩시콜라 5.6%, 칸타타 6.1%, 게토레이 5.8%, 마운틴듀 7.2%, 립톤 6.5%, 아이시스 6.8% 등이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국제 시세와 환율상승으로 인한 캔·커피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등 비용상승·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판매관리비 증가를 반영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롯데칠성음료의 전체 매출 기준으로 2.8% 인상 효과이며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최소화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수정기자

불황에도 보온 소재 '플리스' 각광

따뜻하고 값도 싸 패딩 인기 위협

불황 속 한파가 이어지면서 보온 소재 '플리스(Fleece)'가 각광을 받고 있다. 구스·덕 다운 등 고가의 기능성 소재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세탁도 간편해 부담 없이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플리스는 폴리에스테르에 부드러운 보풀을 일으켜 만든 직물로, 천연 양털처럼 부드럽고 보온성이 탁월한 것이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고등학생은 물론 직장인들 사이에서 비싼 다운 재킷 대신 따뜻하고 저렴한 플리스 재킷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면서 "이같은 트렌드에 맞춰 아웃도어·스포츠 브랜드들이 관련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밀레가 선보인 '에티 플리스 재킷'은 플리스와 스트레치 소재를 함께 적용해 보온성과 활동성을 모두 잡았다. 습기에 강해 쉽게 젖지 않고 빠르게 말라 겨울철 야외활동 시 방수·방풍 재킷 안에 받쳐 입어도 좋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테크 플리스 에어로로프트 파카'를 출시했다.

테크 플리스 에어로로프트란 '플리스'와 '다운' 소재를 절묘하게 결합한 제품으로 보온성이 뛰어나다. 특히 몸매 라인을 살려주는 디자인에 큼직한 모자가 달려있어 슬림룩을 연출해준다.

파타고니아의 '클래식 레트로-X 재킷'은 겉감에는 플리스를, 안감에는 수분 흡수 기능이 탁월한 폴리에스테르 메쉬 소재를 적용했다. 외부의 차가운 바람은 막고 수증기 형태의 땀은 내보내 입고 있는 내내 쾌적하다고 파타고니아 측은 설명했다.

엠리밋은 후드 집업 형태로 어떤 옷에나 쉽게 매치할 수 있는 '플리스 후드 풀집업 티셔츠'를 선보였다. 양면 플리스 원단을 사용해 보온성이 뛰어나며, 가슴 부분에 포켓 디테일로 디자인의 포인트를 줬다.

업계 관계자는 "플리스는 저렴한 가격대에다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며 "특히 외투 안에 받쳐 입어 보온성을 높이는 아이템으로 애용되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붕어빵 부자' 커플룩 제일모직 빈폴키즈는 7일 MBC '아빠 어디가'에 출연중인 배우 류진과 임찬형 부자의 신학기 붕어빵 화보를 공개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생인 찬형이는 세련된 재킷과 트렌치코트로 '리틀 젠틀맨'으로 변신했다. 또 아빠와 함께 커플룩을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제일모직 제공

'주방용품, 유통 채널과 만났다'…공동기획

"유통 단계 축소 통해 가격 절감" 봇물 출시

주방용품 업계가 유통 채널과 공동 기획한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다, 정해진 유통 채널에만 독점 공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한정판처럼 보이는 효과도 있다.

주방가전 브랜드 쿠진아트는 이마트와 손잡고 컨벡션 오븐과 4구 토스터 블랙(사진)을 출시한다. 지난해 이마트와 공동 기획한 전자동 그라인드 커피 메이커가 좋은 반응을 얻자 후속 신제품을 내놓은 것이다.

컨벡션 오븐은 쉬운 다이얼 방식으로 요리 초보자들도 사용이 쉽고 컨벡션 굽기, 일반 굽기, 토스트, 데우기 기능을 갖춰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4구 토스터 블랙은 베이글, 해동, 데우기 등 다양한 메뉴 버튼과 다이얼식 7단계 조리 강도 조절 버튼으로 다양하게 빵을 조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공동 기획을 통해 유통 단계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프랑스 테이블웨어 기업 아크 인터내셔널은 CJ오쇼핑과 2년여에 걸쳐 상품을 기획해 프리에 홈 세트를 홈쇼핑 단독으로 론칭했다.

아크 인터내셔널의 강화유리 제조 공법인 '풀리 템퍼드'로 만들어져 같은 두께의 일반 유리 제품보다 최대 3배 이상 충격에 강하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공법은 유리를 620℃까지 가열했다가 급격히 냉각시키는 과정을 거쳐 유리의 물리적 강도와 열 충격 강도를 3배가량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현재 CJ오쇼핑의 온라인 몰에서 판매 중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침실엔 과일향·거실엔 허브향

환기 소홀하면 악취… 공간별 향기 스타일링

한파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엔 실내 환기가 쉽지 않다. 집안 환기에 소홀하면 주방의 음식냄새, 화장실 배수구냄새 등이 한데 섞여 악취의 원인이 된다.

애경에스티 관계자는 "이땐 일시적인 효과를 내는 뿌리는 방향제보다 액체형 제품을 사용해 은은한 향을 일정하게 지속시켜주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침실에는 귤이나 레몬껍질을 활용한다. 말린 과일껍질을 믹서기에 넣고 갈은 후 담아 놓아두면 은은한 과일향을 느낄 수 있다.

상큼한 과일향보다 은은한 허브향을 선호한다면 카모마일향의 방향제를 놓아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카모마일은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화장실은 집안 내 통풍이 가장 어려운 곳으로 냄새에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방과 연결돼 있는 화장실은 퀴퀴한 냄새가 방안에 유입될 수 있으므로 방향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화장실 냄새는 비누나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다. 커피 찌꺼기 또는 오래됐거나 쓰다 남은 비누를 잘게 잘라 변기, 배수구 옆에 놓아두면 방향 효과를 볼 수 있다.

거실은 온가족의 휴식공간인 만큼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산뜻한 향이 제격이다.

전용 방향제를 비치해두면 좋은데, 애경에스티 홈즈 에어후레쉬 크리스탈워터 아시안허브는 천연 소취성분이 악취의 원인성분만을 제거해 불쾌한 냄새를 없애준다. 또 은은한 허브향이 일정하게 지속돼 공간을 산뜻하게 유지해 준다.

/박지원기자

뉴스&뉴스

이태원 경리단길에 '러쉬 스파 2호점' 오픈

●영국 프레쉬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는 압구정에 이어 이태원 경리단길에 '러쉬 스파 이태원점'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러쉬 스파는 현재 본인의 감정상태에 맞춰 내면까지 치유하는 차별화된 '감성 스파'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제품 개발자와 심리 치료사, 소울 테라피스트가 함께 만들어 정신적인 치유에 더 큰 비중을 뒀으며, 각 프로그램마다 영국 대표 뮤지션인 '사이먼 에머슨'의 힐링 음악을 틀어준다.

러쉬 스파는 ▲시그니처 트리트먼트 '시네스티지아' ▲페이셜 트리트먼트 '발리데이션' ▲풋 트리트먼트 '스펠' 총 8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가격대는 1회당 9만~25만원 선이다.

시몬스, 해피니스 기프트 프로모션

●프리미엄 토털 리빙 브랜드 시몬스는 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해피니스 기프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전국 백화점 매장에서 퀸사이즈 침대 세트(뷰티레스트 마르코니 매트리스)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커플 슬리퍼와 앞치마 세트로 구성된 시몬스 라이프스타일 박스를 증정한다. 또 프레임·협탁·서랍장으로 구성된 시몬스 룸세트(D2007, F2140, F2186 모델) 구매 고객에는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대리점에서는 퀸사이즈 침대 세트(뷰티레스트 퓨전 매트리스)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시몬스 라이프스타일 박스를 선물하고, 침대 프레임 D3021 세트와 시몬스 전용 매트리스 항균커버 헬스스마트를 동시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준다.

겨울철 온열제품 사용 주의!

화상 입으면 감염 막기 위한 치료 필요

추위가 지속되면서 전기장판과 난로 등 난방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난방제품 사용은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화상은 열에 의해 피부에 생긴 손상을 의미하며 화상의 약 90%는 뜨거운 액체나 물건 등에 의해 생긴다. 특히 전기에 의한 화상은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내부조직이나 장기의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 1도 화상은 표피층만 손상된 상태로 약간의 통증과 부종이 있으나 대부분 흉터를 남기지 않고 치유된다. 2도 화상은 1도 화상보다 더 깊은 조직 손상을 입는 것으로 물집이 생기고 부종을 동반한다.

중요한 것은 화상을 입으면 2차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화상을 입었다면 먼저 물이나 자극성이 적은 비누로 깨끗하게 씻은 후 완전하게 건조시켜야 한다. 이어 화상 부위에 항균제를 바른 뒤 거즈를 덮어 둬야 하는데 한국먼디파마의 '메디폼' 등과 같은 습윤드레싱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삼출액이 많고 새어나올 수 있는 상처 부위라면 드레싱을 자주 교환해야 하며 상처가 깊다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재용기자

작은 관심이 건강 지킨다

겨울철 호흡기 비상… 환기 자주 하고 규칙적인 운동하도록

겨울철에는 차갑고 건조한 환경과 실내외 온도 차이로 면역력이 떨어져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어난다. 하지만 일상 속 작은 관심만으로도 호흡기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먼저 난방을 목적으로 겨울철에는 창문을 닫고 생활하게 되는데 밀폐된 실내 공기는 미세한 먼지 등으로 호흡기에 치명적이다. 따라서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공기청정기 등으로 먼지를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또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습기 등을 사용해 적정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겨울철에도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달리기나 자전거 등은 차고 건조한 공기를 폐에 직접 흡입하게 만들어 가급적 삼가야 하며 수영을 비롯한 실내 운동이 도움이 된다. 운동 후에는 휴식을 취해야 하며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마셔 수분 섭취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 찬 공기가 폐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외출 후에는 손발과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게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외출을 삼가야 한다.

이와 함께 호흡기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한 방법이다. 혈관 내 산소를 공급해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오메가3는 기도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폐 질환의 주요 증상인 호흡곤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또 비타민C는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E는 기관지와 폐의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막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 세포 손상을 예방한다.

최천웅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겨울철에는 호흡기 질환 환자가 많다. 평소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키우고 마스크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호텔업계, 겨울방학 프로모션 풍성

바비큐·비누공예체험 등

본격적인 겨울방학을 맞아 특급 호텔들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먼저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은 이색 캠핑존 '캠핑 인 더 시티'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캠핑을 할 수 있는 '윈터 시즌'을 선보인다. 아차산의 겨울 풍광을 감상하며 인디언텐트에서 바비큐를 즐길 수 있으며 붕어빵·솜사탕 만들기 등 다양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도심 속 자연공간인 메이필드 호텔에서는 한겨울의 동심을 채워줄 '스노우맨(Snowman)' 패키지를 만날 수 있다. 가족이 함께 클레이 비누로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체험 혜택이 포함돼 있고 눈사람 인형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또 그랜드 힐튼 서울은 가족들과 따뜻한 겨울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겨울 패밀리' 패키지를 선보이고 밀레니엄 서울힐튼은 매주 주말 어린이를 위한 무료 피자파티를 연다.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은 어린이들을 위해 '내 친구 뽀로로' 패키지와 디즈니 프린세스가 될 수 있는 '디즈니 프린세스 아카데미'를 준비했다. 롯데호텔제주는 나만의 2015 DIY 달력 만들기, 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ACE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겨울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도 아이들의 감성 발달에 도움이 되고 기억에 남는 특별한 여행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황재용기자

기차 타고 여행 떠나세요~

코레일관광개발, '겨울여행' 5선 선정

코레일관광개발이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겨울 기차여행' 5선을 선정했다.

먼저 태백산 눈꽃 기차여행에는 정동진과 묵호항, 태백산 눈꽃을 둘러보는 무박 2일 일정과 태백산 눈꽃을 감상할 수 있는 당일 여행이 있다. 아름다운 눈꽃을 보며 트레킹을 할 수 있고 태백산 눈축제에도 참여할 수 있다.

산타마을 눈꽃 기차여행은 지난해 12월 분천역에 개장한 산타마을로 떠나는 눈꽃열차 코스로 추천역과 승부역을 거쳐 인삼과 정도넛츠로 유명한 풍기역까지 둘러볼 수 있다.

이와 함께 ITX-청춘을 이용하는 겨울축제 기차여행은 세계 4대 겨울축제 중 하나인 화천 산천어축제와 18일까지 열리는 대관령 눈꽃 축제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황재용기자

인공눈물 되레 병 키운다?

다량 사용 위험… 일회용 24시간 이내

건조한 날씨와 스마트폰 등의 영향으로 안구건조증 환자가 늘고 있다. 눈이 건조하면 보통 인공눈물을 사용하는데 인공눈물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다.

대부분 인공눈물을 '눈에 수분을 보충해주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지만 인공눈물도 종류에 따라 성분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주요 성분은 ▲벤잘코늄 ▲티메로살 ▲클로르헥시딘 등으로 이들은 살균성분이라 장기 보관이 불가능하고 다량 사용 했을 경우 각막 손상, 결막의 섬유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에 네 번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최근 인기가 많아진 일회용 인공눈물은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작은 용기에 극소량만 담겨져 판매된다.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개봉 후 24시간이 지났거나 액이 혼탁해진 경우에는 폐기해야 하며 타 제품보다 감염에 민감한 만큼 올바른 사용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사람이 같은 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물이다. 게다가 렌즈 착용자들의 경우는 방부제가 눈에 침착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무방부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인공눈물만으로는 건조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혈액을 채취해 혈소판만을 분리해 농축한 자가혈청 안약(PRP)이 도움이 된다. 보통 라식·라섹수술 후 많이 사용하는데 안구건조증 예방은 물론 수술 후 회복에도 효과적이다. /황재용기자

클라라, 화려함에 감춰진 그녀의 진짜 모습

9년차 배우, 섹시 이미지·연기 외 활동으로 더 큰 화제
'워킹걸' 속 난희에게 공감한 것은 "겉과 다른 내면"
2015년은 연기활동 전념 "다양한 모습 기대하세요"

클라라(28)는 이슈메이커다. 누구는 한 번 이름을 올리기도 어렵다는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서 클라라의 이름을 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무엇을 하든 클라라는 늘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이다.

그러나 클라라는 자신을 "배우"라고 소개한다. 자신의 섹시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8년 동안의 무명 생활을 겪다 보면 대중의 관심은 그저 고마울 뿐"이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다방면의 활동은 "연기를 위한 경험"이라고 잘라 말한다. 그녀의 마음은 단 하나, 배우만을 향하고 있다.

7일 개봉하는 영화 '워킹걸'은 이슈메이커가 아닌 배우로서의 클라라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극중에서 클라라는 성(性) 전문가이자 섹스숍을 운영하는 난희 역을 맡았다. 겉보기에는 섹시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랑에 대한 상처와 외로움이 숨겨져 있는 인물이다. 클라라는 "난희의 내면에서 많은 공감을 느꼈다"고 했다.

◆ 첫 주연작인데 걱정은 없나요?

걱정을 미리해서 뭐하나요(웃음). 섹시한 이미지의 캐릭터인데 왜 작품을 선택했냐고 많이 물어요. 그런데 시나리오가 재미있었어요. 난희의 내면에도 많이 공감이 갔고요.

◆ 난희와 어떤 점이 닮았나요?

난희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외로움이 있는 인물이에요. 저도 어릴 적 스위스에서 태어나 항상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서 외로움이 많았죠. 난희처럼 모든 그리움을 항상 혼자서 이겨내고 버텨내야 했어요.

◆ 난희의 섹시한 이미지는 클라라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한 느낌이에요.

시구 의상으로 섹시한 이미지를 얻은 뒤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다양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속에서도 섹시한 매력이 돋보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의 그런 이미지가 영화에 묻어나서 좋아요. 난희가 보희(조여정)를 만나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 영화 속 의상들이 독특해요. 최근 발표한 노래 '귀요미송2'의 의상도 특이했고요.

무엇이든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돋보이기 위해 그런 의상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다 나름의 콘셉트가 있거든요.

◆ 영화 초반의 난희는 성에 대해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처럼 묘사됩니다. 실제 클라라는 어떤가요?

사람 만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격이에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성에 대해 개방적이지는 않아요.

◆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난희를 연기하기 위해 어떤 점에 신경썼나요?

원래 성격은 무척 활달해요. 영화 초반의 난희를 보여주기 위해 감정을 억눌러야 해서 답답했어요. 오히려 후반부의 감정 표현이 명확한 난희가 실제 저와 더 비슷해요.

◆ 노래, 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클라라의 직업은 배우인 거죠?

네. 다양한 활동도 연기를 위한 것이에요. 최대한 많은 걸 경험해서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싶어요.

◆ 배우로서는 9년차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클라라의 대중적인 이미지는 배우보다 엔터테이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워킹걸' 개봉 이후의 반응이 궁금해요. 연기자로 평가를 받는 거니까요. 2015년에는 연기에 전념하려고 해요. 1월 중순에는 홍콩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될 단편영화 촬영이 예정돼 있고요. 2월에는 할리우드 영화 미팅 계획도 있어요.

◆ 지나치게 이미지가 소비되고 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까지도 이슈가 되는 게 피곤하지 않나요?

8년 무명 생활을 겪으면 감사함 밖에 없어요. 피곤하지도 않고요(웃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저에게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 앞으로 또 해보고 싶은 역할은 무엇이 있나요?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이 많아요. 저를 화려하게 봐주시니까 오히려 힘을 뺀 청순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 청순한 이미지도 있는 건가요? (웃음)

지금 제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웃음) 작품으로 청순한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기대해주세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한제훈(라운드테이블)·디자인/최송이

노을, 13년차 보컬그룹 내공 보여준다

새 미니앨범 '보이지 않는 것들' 발표
타이틀곡 '목소리' 등 자작곡으로

4인조 남성 보컬 그룹 노을(멤버 이상곤·강균성·전우성·나성호)이 새 미니앨범 '보이지 않는 것들'로 컴백한다.

노을은 신보 발매를 하루 앞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M콘서트홀에서 음감회(음악감상회)를 열고 신곡 맛보기 무대를 선보였다.

노을은 "음감회란 것을 처음 해본다. 신곡을 소개하는 자리이니 라이브로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데뷔 13년차 답지 않은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첫 번째 노래 '가슴을 차갑게'가 시작되자 긴장을 풀고 아름다운 화음과 능숙한 무대 매너를 보여줬다.

이날 노을은 타이틀곡 '목소리'를 비롯해 수록곡 '가슴을 차갑게' '날개' '시 유 인 네버랜드(See You in Neverland)' 등을 라이브로 선보였다. 이날 이들이 부른 노래는 모두 자작곡이다.

특히 타이틀곡 '목소리'는 이상곤이 작곡가 팀 와사비 사운드와 함께 만든 노래다. 나성호는 "노을 멤버가 만든 노래가 타이틀 곡으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멤버 4명이 한 곡씩 써서 앨범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더욱 의미있고 특별하다"며 "사실 저작권료를 기대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우성은 "이상곤 님의 저작권을 위해 열심히 부르겠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목소리' 무대가 끝난 뒤 강균성이 "내가 부르는 부분의 키가 너무 높다"며 불만을 토로하자 이상곤은 "우리 멤버들에게 최적화된 곡이라 생각했는데 과대평가한 것 같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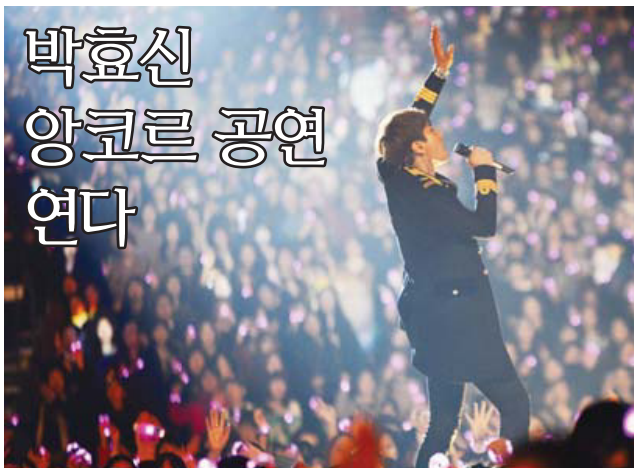
전문 진행자 없이도 농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어 가던 노을은 음악 얘기로 화제가 바뀌자 다시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앨범 제목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이상곤은 "작년 여름쯤 곡을 만들다 떠오른 제목"이라며 "보이는 것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발라드를 주로 부르다 보니 사랑이나 이별을 주로 노래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주제를 표현하고 싶어서 만든 앨범"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을은 9일 KBS2 '뮤직뱅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그룹 노을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M콘서트홀에서 새 미니앨범 '보이지 않은 것들' 음감회를 열고 신곡 무대를 선보였다.(왼쪽부터) 이상곤, 강균성, 전우성, 나성호. /YNB 엔터테인먼트

박효신 앙코르 공연 연다

데뷔 15주년 투어 '소 해피 투게더' 확정

가수 박효신의 데뷔 15주년 기념 전국 투어 '해피투게더'가 앙코르 공연을 실시한다.

박효신의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의 데뷔 15주년 기념 라이브 투어 '해피투게더(HAPPY TOGETHER)' 종료 후 팬들의 앙코르 공연 요청이 쇄도해 서울에서 공연을 한 번 더 개최하기로 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앙코르 공연 타이틀은 '소 해피 투게더(SO HAPPY TOGETHER)'로 다음달 14·15일 이틀간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다.

박효신은 지난해 12월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총 7회에 걸쳐 콘서트를 열었다. 전회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지난해 선보인 박효신의 투어는 그의 음악 역사 15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연 구성과 선곡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히트곡 '야생화' 라이브를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뮤지컬배우 김소향, 김수용 등과 함께 뮤지컬 '엘리자벳' '모차르트!' 등의 하이라이트 넘버를 부르는 등 다채로운 무대를 꾸몄다.

한편 박효신의 앙코르 공연 '소 해피 투게더'의 티켓 오픈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김지민기자

'솔로 출격' 종현·정용화, 공통점은?

다른 아티스트와 협업으로 새로운 음악 시도
자작곡으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발판 마련

두 보이그룹의 메인 보컬이 솔로로 출격한다. 주인공은 샤이니의 종현과 씨엔블루의 정용화다.

이들은 솔로 앨범에서 '콜라보(컬래버레이션)'와 '자작곡'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존에 호흡을 맞추던 팀 멤버가 아닌 다른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콜라보'는 새로운 음악색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또 이들은 보컬로서의 가창력뿐만 아니라 자작곡을 통해 싱어송라이터의 모습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종현은 오는 12일 첫 솔로앨범 '베이스(BASE)' 발매에 앞서 7일 오전 0시에 자작곡 '데자-부(Deja-Boo)'를 선공개했다. 노래는 멜론·지니·올레뮤직 등 온라인 음원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에 오르며 순조로운 신호탄을 쐈다.

총 7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에서 종현은 '데자-부'를 포함해 4곡의 자작곡을 실었으며 전곡 작사에 참여했다. '데자-부'에서 종현은 자이언티(Zion.T)와 함께했다. 마이클 잭슨이 연상되는 종현의 보컬과 독특한 목소리를 자랑하는 자이언티의 만남은 샤이니의 메인 보컬 종현과는 또 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종현은 지난 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솔로 앨범에서 자이언티·윤하·휘성·아이언 등과 협업했다고 알렸다. 특히 타이틀곡 '크레이지(Crazy, Guilty Pleasure)'에서는 신예 래퍼 아이언과 함께 했다고 밝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용화는 아이언을 키운 양동근과 호흡을 맞춘다. 정용화의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이하 FNC)는 정용화가 이번 솔로 앨범에서 총 4명의 가수들과 협업했다고 7일 밝혔다.

정용화와 양동근은 앞서 tvN 드라마 '삼총사'에 출연하며 가수가 아닌 배우로서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이번 앨범에서 두 사람은 가수로서 만나 '마일리지(Mileage)'라는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용화가 힙합 가수와 부른 노래를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씨엔블루의 밴드 음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화 역시 이번 앨범에 자작곡을 실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수록곡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정용화는 '아임 쏘리(I'm sorry)' '류 캔 두잇(Ryu Can Do It)' '캔트 스톱(Can't Stop)' 등의 노래를 만들며 싱어송라이터로서 합격점을 받은 바 있다. FNC는 오는 11일부터 정용화 앨범에 참여한 아티스트를 차례로 한 명씩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민기자

종현

양동근과 정용화.

"I am AeBall"

크기 : W 125mm × H 119mm

나는, 각종 세균 · 담배냄새 등 악취를 정화해주는 공기정화기입니다.
나는, 충전기능이 있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필터 교체 없이 간단한 세척만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나는, 은은한 LED 조명이 있어 밤에는 무드등으로도 좋습니다.
나는, 공기의 오염도를 자동으로 감지해 강하게, 또는 약하게 공기정화를 합니다.
나는, 일반 220V 콘센트는 물론 USB포트에 연결하면 충전과 동시에 작동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공기정화기 – 에이볼 입니다.

충전식 공기정화기 에이볼 출시 기념 특별 기획전
충전식 실내용 공기정화기 에이볼을 구입하시면
차량용 공기정화기 카비타 II S를 드립니다. (500개 한정)

나만의 Clean Zone – 충전식 공기정화기 에이볼

AEBALL

제품구입 / 기업 · 단체 특판상담 1588-7025 www.airvita.net 검색 에어비타

속 보이는 드라마 제목

내용 충실 형…'킬미, 힐미' '하이드 지킬, 나'
주인공 소개 형…'힐러' '피노키오'

'킬미 힐미' 지성·황정음.

'하이드 지킬, 나' 현빈·한지민.

드라마 제목이 작품의 주인공과 줄거리를 말해 주는 경우가 눈에 띈다. 간단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속 보이는' 드라마 제목을 살펴보자.

이달 MBC와 SBS가 내놓은 새 수목드라마 '킬미, 힐미'와 '하이드 지킬, 나'는 내용을 암시하는 데 충실했다.

'킬미, 힐미(Kill me, Heal me)'는 다중인격장애를 앓는 재벌 3세와 정신과 의사의 로맨스, 이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다룬 작품이다. 지성이 7개 인격을 가진 재벌 3세 차도현 역을 맡았다. 비밀 주치의의 도움을 받아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극복한다. 황정음은 차도현의 비밀 주치의인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1년 차 오리진으로 분했다.

드라마는 '상처 치유에 가장 강력한 백신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전개된다. 여러 인격을 죽여야만 살게 되는 남자의 이야기가 시청자의 궁금증을 자극한다. 7일 첫 방송된다.

'하이드 지킬, 나'는 한 남자의 전혀 다른 두 인격과 사랑에 빠진 여자 장하나의 삼각 로맨스를 다룬다. 현빈은 작품에서 1인 2역에 도전한다. 차가운 까칠남 지킬 구서진과 달콤한 순정남 하이드 로빈으로 상반된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한지민은 이중 인격자 구서진이 상무로 있는 테마파크 원더랜드의 서커스 단장이자 간판 배우 장하나 역을 맡는다. 구서진 내면에 있는 인격들을 조련하는 인물이다. 오는 21일 첫 방송된다.

현재 방영 중인 KBS2 월화극 '힐러'와 SBS 수목극 '피노키오'는 주인공의 특성을 제목으로 선정했다.

'힐러'는 업계 최고의 심부름꾼 서정후(지창욱)의 코드명이다. 서정후는 블랙 패션과 스마트 기기로 무장한 모습으로 미스터리한 매력을 풍긴다. 조민자(김미경)와 원격으로 교류하며 미션을 해결하는 모습이 극의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분석이다. 날렵한 액션은 지창욱의 날카로운 눈매와 어우러져 보는 재미를 더한다.

'피노키오'는 극적 장치인 피노키오 증후군을 앓는 최인하(박신혜)가 진정한 기자로 성장하는 이야기다. 거짓말을 하면 딸꾹질을 하기 때문에 기자를 할 수 없다는 편견을 극복하고 있다.

최인하는 사랑에 있어 밀당을 하기 어렵다. 솔직한 고백이 청춘 멜로의 재미를 더한다. 또 "팩트보다는 임팩트"를 뉴스의 조건이라고 보는 세력들과 맞서 '진짜 뉴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인기를 견인 중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힐러' 지창욱.

★들의 장벽 허문 첫 도전

공효진·이승기·주진모, 연극·영화·뮤지컬서

배우 공효진(사진)·이승기·주진모가 새로운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끈다.

공효진은 데뷔 15년 만에 처음으로 연극 무대에 올랐다. 지난달 3일 막을 올린 연극 '리타'는 주부 미용사 리타가 평생교육원에 입학해 권태로운 삶에 빠져있던 프랭크 교수를 만나 두 사람이 서로를 변화시켜 가는 과정을 담아낸 2인극이다. 주인공 리타 역은 공효진과 함께 배우 강혜정이 맡았다.

지난 12월에 이어 1월 마지막 공연일까지 공효진이 등장하는 회차는 모두 매진을 기록하며 '티켓파워'를 증명했다.

드라마·예능·가요계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브라운관을 사로잡았던 이승기는 데뷔 10년 만에 영화에 도전한다. 박진표 감독의 영화 '오늘의 연애'로 스크린에 데뷔하는 것이다.

이승기는 이번 영화에서 여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하지만 100일도 못 가 차이는 '답답남' 준수를 연기한다. 문채원·이서진과 호흡을 맞췄으며 오는 15일 개봉할 예정이다.

주진모는 프랑스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레트 버틀러 역을 맡아 9일부터 아시아 초연 무대에 오른다. 레트 버틀러 역은 나쁜 남자지만 운명의 여인 스칼렛 오하라에게는 순정을 바치는 모습으로 전세계 여성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주진모는 영화 '사랑'과 드라마 '패션70s' 등의 대표작에서 거친 외면과 달리 한 여자만을 바라보는 순애보로 여심을 사로잡은 바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공명 '화정'으로 안방 데뷔

서프라이즈 서강준·이태환 이어 활약 예고

신인 배우 공명(사진)이 MBC 새 월화극 '화정'에 출연한다.

공명은 '화정'에서 자경 역을 맡았다. 주인공 정명공주의 호위무사이자 가장 가까운 벗이다. 조선인 노예로 지내며 악만 남은 인물이다. 그러나 정명공주에게만은 마음을 다하는 캐릭터다.

공명은 배우 그룹 서프라이즈의 멤버로서 서강준·이태환과 한팀이다. 현재 서강준은 KBS2 주말극 '가족끼리 왜이래'의 요식업 CEO 윤은호로, 이태환은 MBC 월화극 '오만과 편견'의 인천지검 수사관 강수로 활약 중이다. 공명이 멤버들의 기를 이어받아 배우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공명은 "드라마 데뷔를 하게 돼 긴장되고 설렌다"며 "캐릭터를 위해 열심히 액션 연습을 하고 있다. 이번 작품으로 시청자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출연 소감을 전했다.

'화정'은 '환상의 커플' '내 마음이 들리니' '아랑 사또전'을 연출한 김상호 감독과 '이산' '동이' '마의'를 집필한 김이영 작가가 함께 제작한다. 오는 19일 첫 방송되는 '빛나거나 미치거나' 후속작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중국 대륙 사로잡은 한예슬

'미녀의 탄생' 현지 동영상 사이트서 큰 인기

배우 한예슬(사진)이 SBS 주말극 '미녀의 탄생'으로 중화권을 사로잡았다.

'미녀의 탄생'은 중국 동영상 사이트 투도우에서 한국드라마 1위, 중국 작품을 포함한 전체 드라마에서 2위를 차지했다. 유쿠에서는 4억 이상의 시청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중화권에서 작품이 흥행하고 있는 데에는 한예슬의 인기가 주요하다는 분석이다. 극중 사랑스럽고 솔직한 사라(한예슬)의 매력이 실제 한예슬과 일치하면서 중국 시청자에게 호감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예슬은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주목 받는 여배우 검색 순위 상위권에 랭크된 바 있다. 이에 한예슬은 소후닷컴 내 소속사 키이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하며 중국 팬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한예슬은 '미녀의 탄생'을 통해 3년 공백이 무색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극중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 살림의 여왕 사금란을 버리고 전신 성형 수술을 감행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사라 역을 맡았다.

사라는 완벽한 미녀지만 내면은 영락없는 아줌마인 반전 캐릭터다. 한예슬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성격을 적절히 조화하며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전효진기자

스크린으로 전하는 판소리 선율

류승룡·수지, '도리화가' 촬영 마치고 크랭크업

배우 류승룡, 배수지(수지), 송새벽 주연의 영화 '도리화가'(감독 이종필)가 지난 2일 전라북도 남원에서의 촬영을 끝으로 크랭크업했다.

'도리화가'는 조선 고종 시대 실존 인물이었던 판소리 대가 신재효(류승룡)와 그가 키워낸 조선 최초의 여류 명창 진채선(배수지)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영화는 다수의 작품으로 흥행력을 입증한 배우 류승룡이 신재효 역을, '건축학개론'을 통해 '국민 첫사랑'으로 사랑 받은 배수지가 진채선 역을, 그리고 송새벽이 조선 시대 판소리 명창 김세종 역을 맡아 캐스팅 단계부터 화제를 모았다.

촬영은 혹한의 날씨 속에 경북 안동, 경남 합천, 전북 부안, 전북 남원, 전남 순천, 충남 부여, 수원, 용인, 남양주,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4개월 동안 진행됐다. 새해 첫 눈 소식이 있던 지난 2일 전라북도 남원에서 진행된 마지막 촬영은 체감 온도 영하 10도에 달하는 강추위 속에서도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열정적인 분위기로 촬영에 임해 마지막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촬영을 마친 뒤 류승룡은 "4개월 만의 촬영이 이제 끝났다. 무엇보다 스태프들의 노고에 감사할 따름이다. 매 순간마다 기쁜 마음으로 찍었으니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수지는 "건강하게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잘 끝나서 기쁘다. 진채선으로 살아온 4개월 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행복했다.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여느 때보다 노력한 작품인 만큼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송새벽은 "영화에 좋은 기운이 감돌고 있음이 느껴진다. 좋은 영화가 탄생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만족과 기대를 나타냈다.

'도리화가'는 흡입력 있는 스토리와 아름다운 판소리 선율이 결합된 새로운 스타일의 사극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보인다. 후반 작업을 거쳐 올해 중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고아성, 홍상수 사단 합류

배우 고아성(사진)이 홍상수 감독의 신작에 출연한다고 7일 소속사 포도어즈 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홍상수 감독의 신작은 앞서 정재영, 김민희, 유준상의 출연을 확정해 화제를 모았다. 고아성까지 합류하면서 환상의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홍상수 감독의 신작 또한 즉흥적이고 독창적인 기존 영화 작업 방식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줄거리와 갈등 구도는 물론 제목과 캐릭터 이름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아성은 영화 '설국열차'로 전 세계 영화인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할리우드에서도 귀여운 소녀에서 우아한 아시아의 여인으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크랭크업한 영화 '오피스'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의 신작 영화는 오는 1월 말 크랭크인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서부전선' 촬영 종료

설경구·여진구 주연 전쟁영화

설경구, 여진구 주연의 전쟁영화 '서부전선'(감독 천성일)이 지난 4일 크랭크업했다.

'서부전선'은 1953년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남과 북의 병사가 서부전선에서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400만 관객을 동원한 첩보 코미디 '7급 공무원', 백상예술대상 극본상과 방송대상 작가상을 수상한 드라마 '추노', 그리고 지난해 흥행작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의 각본을 맡았던 천성일 감독이 직접 메가폰을 잡은 작품이다.

설경구는 이번 영화에서 기밀문서 전달 작전에 투입된 남한군 병사 남복 역을 맡았다. 여진구는 북한군 전차부대 소년병 영광 역으로 호흡을 맞췄다. 이들 외에도 이경영·정인기·김원해·정성화·김태훈·정석원 등이 함께 했다.

마지막 촬영은 남복과 영광이 함께하는 장면으로 1953년 당시 서부전선에서 볼 수 있었던 실제 탱크를 면밀하게 고증해 구현한 탱크 내부 세트에서 진행됐다. 촬영을 마친 뒤 천성일 감독은 "함께 해서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설경구는 "스태프들이 인상 한 번 안 쓰고 분위기 좋게 밝게 촬영해줘 매우 고마웠다. 시원섭섭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진구는 "매일 입던 군복을 이제 못 입는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난다. 현장에서 스태프들과 감독님, 선배님들과 재미있게 어울려 지냈는데 촬영이 끝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서부전선'은 후반 작업을 거쳐 올 하

김준수·옥주현·정선아 '최고의 티켓파워'

골든티켓어워즈 티켓파워상 수상자로 선정

배우 김준수, 옥주현, 정선아가 2014년 뮤지컬 최고의 티켓파워를 보여준 배우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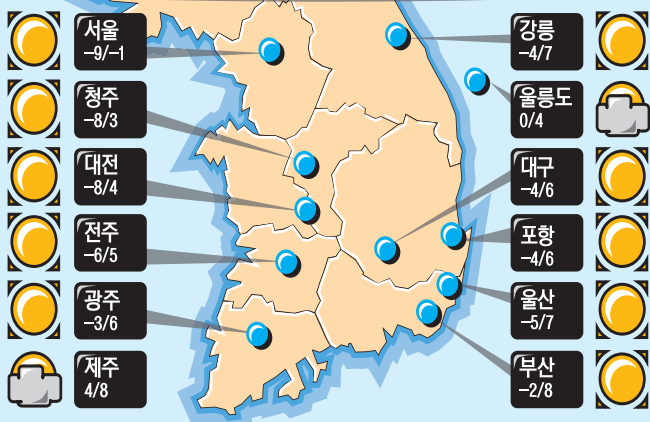
티켓예매 사이트 인터파크는 2014년 한해 동안 최고의 티켓파워를 보여준 작품과 인물을 가리는 '2014년 골든티켓어워즈'를 수상작과 수상자를 7일 발표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골든티켓어워즈에서 티켓파워상 뮤지컬 남자 배우는 김준수가, 여자 배우는 옥주현과 정선아가 선정됐다. 김준수와 옥주현은 이번이 3회째 수상이다.

김준수는 2013년 '디셈버'와 '엘리자벳', 2014년 '드라큘라'로 티켓파워를 증명했다. 온라인 투표에서도 9043표의 압도적인 표를 획득해 1위에 올랐다.

옥주현, 정선아는 판매량과 투표 등 합산 점수에서 동점을 기록해 공동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옥주현은 2014년 '마리 앙투아네트' '레베카' '위키드' 등에 출연해 티켓 판매량에서 앞섰으며 정선아는 '위키드' '드라큘라' '킹키부츠' 등에 출연해 5320표로 온라인 투표에서 앞섰다.

또한 골든티켓어워즈 작품상 대상은 뮤지컬 '드라큘라'가, 뮤지컬 부분 작품상은 '모차르트'가 차지했다.

골든티켓어워즈의 후보와 수상작은 1년 동안 인터파크에서 판매된 공연의 판매 매수와 랭킹 가산점, 온라인 투표 합산을 통해 선정했다. 인물의 티켓파워는 총 출연작품과 출연회차의 판매매수를 합산했다. 온라인 투표는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만 4257명이 중복 투표 없이 참여했다. /장병호기자

김준수 옥주현 정선아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8
		6		1		7		
2					7	5	9	
	8				2	3		
1				3				5
		3	6				8	
	9	4	7					2
		2		6		8		
6			1					

					5	6		
8		7		9			1	
						8	5	3
4		2			7			
	6			5			7	
			6			9		2
2	8	3						
	1			6		7		8
		6	2					

스도쿠 정답

9	7	5	2	4	6	1	3	8
8	3	6	9	1	5	7	2	4
2	4	1	3	8	7	5	9	6
4	8	7	5	9	2	3	6	1
1	6	9	8	3	4	2	7	5
5	2	3	6	7	1	4	8	9
3	9	4	7	5	8	6	1	2
7	1	2	4	6	9	8	5	3
6	5	8	1	2	3	9	4	7

1	3	4	8	2	5	6	9	7
8	5	7	3	9	6	2	1	4
6	2	9	7	4	1	8	5	3
4	9	2	1	8	7	3	6	5
3	6	8	9	5	2	4	7	1
5	7	1	6	3	4	9	8	2
2	8	3	5	7	9	1	4	6
9	1	5	4	6	3	7	2	8
7	4	6	2	1	8	5	3	9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양꼬치와 을미년의 오감만족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한자인 아름다울 미(美)와 향기로울 향(香)자에는 한 가지 공통된 의미가 있다. 엉뚱하게 두 글자 모두 맛있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미'는 시각적으로 보기에 좋다는 감각이고 '향'은 후각적으로 냄새가 좋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어떻게 두 글자가 동시에 전혀 이질적 감각인 미각적으로 맛이 좋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

한자를 풀어 보면 알 수 있다. 아름다울 미(美)는 양(羊)이라는 글자 아래에 큰 대(大)자로 이뤄져 있다. 2000년 전의 한자 사전인 「설문해자」에서는 아름답다는 말은 곧 맛있다는 말과 통하는데 양이 크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풀이해 놓았다.

양은 고기와 털을 제공하고 하늘에 바치는 제사에도 쓰는 유용한 동물이었다. 그러니 요즘 어린 아이들이 하늘만큼 땅만큼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커다란 양만큼 좋다고 표현했던 모양이다. 아름다울 '미'자가 만들어진 내력이다. 양고기를 주로 먹는 유목 문화의 산물이다.

향기로울 향(香)자는 벼 화(禾) 아래에 해를 뜻하는 날 일(日)자로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의 글자는 기장 서(黍)자 아래에 달 감(甘)자로 구성된 글자다.

벼농사를 짓지 못했던 고대 북방에서는 쌀 대신 좁쌀처럼 생긴 기장이 주식이었다. 때문에 밥을 지을 때 기장 삶는 냄새가 가장 달고 향기롭게 느껴졌다. 그래서 주식이 되는 곡물인 기장 '서'와 달고 맛있다는 뜻의 '감'이 합쳐져 향기로울 '향'자가 만들어졌고 그 속에 맛있다는 의미가 포함됐다. 곡식을 중심으로 식사하는 농경 문화권에서 생겨난 글자다.

그러고 보면 잡곡밥에 양꼬치구이를 먹으면 이질적 문화의 통합은 물론이고 시각과 후각에 더해 미각까지 합쳐졌으니 최고의 식사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달콤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촉각에 청각까지 더해져 완전 오감만족이다. 을미년 양띠 해를 아름답고(美)고 향기롭게(香) 보내는 방법이다.

/음식문화평론가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아버지 사업 같이하는데 잘될까요
다른곳 쳐다보지 말고 적극 돕도록

Q

궁금녀^^ 남자 87년 3월 15일 양력 8시경
남자 58년 8월 24일 양력

아버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론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 승마용품 수출수입 및 내수도 하며 맞춤부츠등 여러 방면으로 키워가고 있는 중 입니다. 2년 정도 밑에서 일했는데, 아버지와 충돌도 많고 일도 힘들고 바쁜 반면 저에게 돈은 많이 안 들어와서 걱정 입니다. 조금씩 커가고 있는데 가족사업이다 보니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부담감도 있고, 사업은 괜찮아 질까요? 저에게 이사업이 맞는 걸까요? 언제쯤 돈이 들어올까요?? Ps. 부산에서 사업하는데 대구에 2호점 계획 중인데 그것도 괜찮을까요?

A 잘 들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한 가지로만 이뤄지고 결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입 시험을 볼 때 종합적인 점수는 하나의 과목 혹은 몇 개의 과목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과목의 점수가 합쳐져서 총점이 나옵니다. 사주 역시 어느 한 쪽 면이 안 좋다고, 또는 어느 한 쪽이 무척 좋다고 모든 일이 그걸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주에 먹구름이 끼고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어딘가는 밝은 햇살이 비치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실타래를 풀어내고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일이 더 잘 풀리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버님 일을 하게 된 것도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귀하가 천을귀인(天乙貴人:귀인으로서 도움을 주는 길함)이므로 아버지와 귀하가 상생을 하게 되는 것으로 천륜으로 맺어진 육친관계가 부자지간이므로 현실을 감사하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부자지간이기는 하지만 윗사람은 자신의 연륜입장에서 부족한 자식을 바라보면 정신적, 경제적 트러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아들인 자신이 이해해야하며 남남이 모인 것이 아니므로 마음을 비우고 후회 없는 부자지간으로 지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워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새롭게 창업을 한다해도 성공률은 3년 내에 20%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실패를 하는 것이 지금의 실태이므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의지처가 있는 귀하는 행복하니 다른 곳을 쳐다보지 말고 지혜롭게 잘 해나가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월 8일 (음 11월 18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뜻밖의 공돈이 생긴다. **60년생** 자손에 경사 있으니 기대하라. **72년생** 고집을 부리면 미운털만 박힌다. **84년생** 굴욕은 잠시이니 조금만 버텨라.

49년생 둔감한 감성을 깨워라. **61년생** 멀리서 반가운 벗이 온다. **73년생** 빛바랜 명성에 집착하지 말라. **85년생** 현재 자신을 보면 미래 자신도 보인다.

50년생 거창한 계획은 실효성 낮다. **62년생** 자기 생각을 남에게 강요 말라. **74년생** 불의에 침묵은 죄가 된다. **86년생** 기회 왔을 때 신나게 끼 발휘하라.

51년생 삶의 의미를 반추해 보자. **63년생** 피붙이의 정에 끌려가면 후회한다. **75년생** 꼬인 일은 원점서 다시 하라. **87년생** 필이 꽂히는 이성과 마주앉는다.

52년생 위기 벗어나려면 역발상이 필요하다. **64년생** 꼬리 잡히지 않도록 조심~. **76년생** 숨은 실세 파악하면 길은 보인다. **88년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

53년생 배우자 일에 엇박자 말라. **65년생** 여행하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77년생** 큰일 하려면 미움 받는 것 두려워 말라. **89년생** 큰 성과에 칭찬이 쏟아진다.

42년생 생각이 늙으면 진짜 노인 된다. **54년생** 고집 부리지 말라. **66년생** 마음살림 잘해야 걱정이 사라진다. **78년생** 산만 높다 말고 올라가 보자.

43년생 어려운 사람에 등대가 되라. **55년생** 소일거리가 생겨 즐겁다. **67년생** 사촌이 논을 사서 배가 아픈 격~. **79년생** 고난의 눈물밥 행진은 끝이 보인다.

44년생 집안일은 합의점 찾는다. **56년생** 사소한 일에 진땀 빼지 말라. **68년생** 꼼수를 부린 일에 경고음 울린다. **80년생** 투정 부리는 연인을 이해할 것.

45년생 타당성 없는 계획은 접어라. **57년생** 시들지 않는 꿈이 있어 유쾌하다. **69년생** 구애는 자리를 봐가며 하라. **81년생** 황무지에 새 싹이 돋는 격이다.

46년생 꽉 막힌 일은 뚫린다. **58년생** 술자리서 이성의 유혹 조심~. **70년생** 역발상이 필요한 시기다. **82년생** 겁 없이 도전하면 이익이 풍성~.

47년생 아전인수 이웃에 부글부글~. **59년생** 빈집에 소가 들어온 격이다. **71년생** 공직자는 추문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 **83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박태환 전지훈련 찾아 '미국행'

새로운 자극·다양한 환경 경험 찾아

한국수영의 간판 박태환(26·인천시청·사진)이 올해 전지훈련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7일 오전 미국으로 떠났다.

박태환은 2주 가량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스윙맥 캐롤라이나 클럽에서 훈련 시설과 분위기 등을 살펴보고 돌아올 예정이다.

이 수영클럽은 라이언 록티(31·미국)를 지도해온 데이비드 마시 코치가 운영하는 곳이다. 록티는 올림픽에서만 5개,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15개의 금메달을 딴 수영선수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국내에서 휴식해온 박태환은 새로운 자극을 찾고 다양한 훈련 환경을 경험하기 위해 호주가 아닌 미국으로 시선을 돌렸다. 박태환은 그동안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 큰 대회를 앞두고는 호주에서 훈련해왔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인연을 이어온 호주 출신 마이클 볼 코치와 재계약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과 볼 코치는 지난해 계약이 끝난 뒤 아직 연장 계약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제라드, 66억원에 LA갤럭시 행

단숨에 미국프로축구 연봉 2위 오를 듯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버풀의 '영웅' 스티븐 제라드(35·사진)가 미국프로축구(MLS) LA갤럭시와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국 방송 BBC는 7일(한국시간) 인터넷판을 통해 "제라드가 리버풀과 18개월짜리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이다. 연봉은 400만 파운드(약 66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제라드는 오는 6월 리버풀과 계약이 만료된다. 그 동안 올 시즌이 끝난 뒤 제라드가 17년 동안 뛴 리버풀을 떠나 LA갤럭시로 이적할 것이라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정확한 액수가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LS는 샐러리캡(연봉총액상한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각 팀별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3명의 선수를 보유할 수 있는 지정선수 제도도 있다. 카카(올랜도시티), 저메인 데포(토론토FC), 로비 킨(LA갤럭시) 등 전성기에 유럽 축구계를 주름잡았던 스타들이 지정선수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MLS에서 뛰고 있다.

제라드가 BBC 보도대로 연봉 400만 파운드를 받는다면 MLS에서 두 번째로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가 된다. 현재 연봉 1위는 430만 파운드를 받는 카카다.

한편 맨체스터 시티의 프랭크 램퍼드도 올 여름부터 MLS 신생 구단인 뉴욕시티에서 뛸 예정이다. 잉글랜드 대표팀의 중원을 책임졌던 제라드와 램퍼드의 맞대결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장병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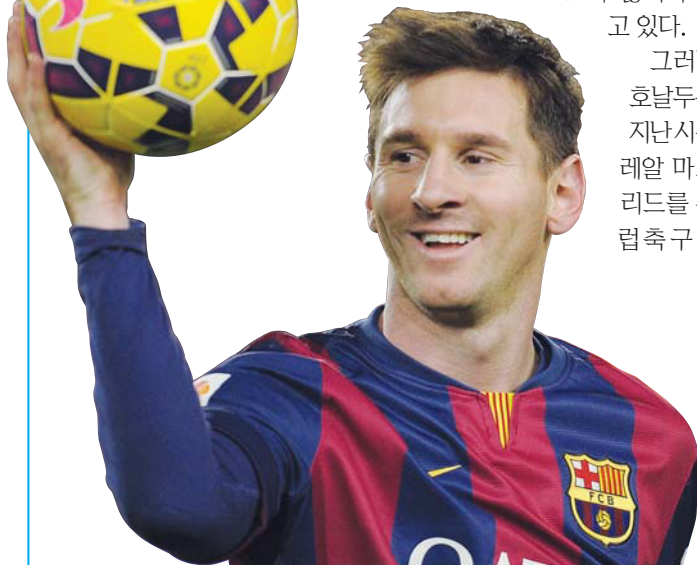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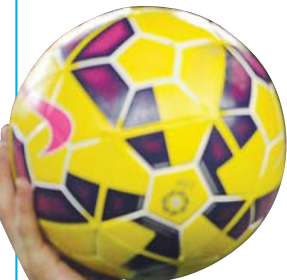
메시, 가장 몸값 비싼 축구선수로

이적료 추정치 2871억… 라이벌 호날두 제쳐

FC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사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축구 선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스포츠연구센터(CIES) 축구연구소가 2009년부터 쌓은 각 선수의 기록, 팀 공헌도, 나이 등의 자료와 1500개 구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메시의 현재 이적료 추정치는 2억2000만 유로(약 2871억3000만원)로 나타났다.

메시와 쌍벽을 이루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는 1억3300만 유로(약 1735억8000만원)로 2위에 올랐다.

메시는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발롱도르를 호날두에게 넘겨주고 바르셀로나에서 무관에 그친데다 월드컵에서 준우승하는 등 아쉬움 짙은 한 해를 보냈다. 이 가운데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 첼시 등 부자구단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낸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호날두는 지난시즌 레알 마드리드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정상으로 올려놓고 발롱도르를 받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그래서 이번 조사결과가 다소 의외라는 평가도 있다.

한편 첼시는 에덴 아자르(9900만 유로·약 1292억1000만원)가 3위에 올랐으며 디에코 코스타(8400만 유로·4위), 세스크 파브레가스(6200만 유로·8위) 등 몸값 '톱10'에 드는 선수를 3명이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맨체스터 시티의 세르히오 아궤로(6500만 유로·6위), 리버풀의 라힘 스털링(6300만 유로·7위), 아스널의 알렉시스 산체스(6100만 유로·9위)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누비는 선수는 모두 6명이 톱10에 들었다.

또한 2013년 여름 유럽 축구 역대 최고 이적료를 갱신하며 레알 마드리드로 옮긴 가레스 베일은 몸값 6000만 유로(약 783억1000만원)로 10위를 차지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11명의 선수가 몸값 상위 100명에 들었다.

/장병호기자 solanin@

맥길로이 '2014 올해의 선수'

LPGA 상금왕 스테이시 루이스도 함께

남자프로골프 세계 랭킹 1위 로리 맥길로이(북아일랜드·사진)가 미국골프기자협회(GWAA)에서 2014년 '올해의 선수'로 꼽혔다.

7일(한국시간) 미국 골프채널에 따르면 맥길로이는 9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이 상을 받았다. 그는 "작년 프로 골퍼로서 최고의 해를 보냈다는 증거이며 내가 다음 시즌에도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자프로골프 세계 랭킹 3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와 57세의 노장 베른하르트 랑거(독일)도 미국골프기자협회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지난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상금왕(253만9039 달러)인 루이스는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와 재미동포 미셸 위를 따돌리고 57%의 득표율로 이 상을 받았다. 랑거는 시니어선수 부문에서 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4월 8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프로배구 전적 07일

인삼공사	1	3	현대건설
삼성화재	3	1	한국전력

프로농구 전적 07일

오리온스	22	12	17	24	75
KCC	8	10	23	28	69
인삼공사	18	22	26	19	85
LG	34	22	23	23	102
하나외환	24	16	10	17	67
국민은행	14	11	23	23	71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
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
처음
처럼
부드러운
17.5도
알칼리환원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